— 1 —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3 1981년9월1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September 1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쥬리히로 가던 KAL소속 점보747비행기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중 실패 활주로를 벗어나 고속도로 철책에 배를 깔고 불시착 했다. 327명의 승객들은 비상구로 무사히 탈출했고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비행기는 서울을 떠나 마닐라 바레인을 거쳐 스위스로 가던중 이었다.

## 마닐라서 이륙실패

### 16명 부상

〈마닐라〉 15일 하오 9시15분(현지시간) 승객 및 승무원 3백78명을 태우고 마닐라 국제공항을 이륙하던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점보기(기장·김영선)가 왼쪽4번 엔진에 불이 일어나 이륙에 실패,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인근 고속도로에 부딪쳐 승객12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장목격자에 의하면 이 비행기는 승객을 태운 후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지 못하고 비행장 철조망을 들이받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했다고 한다.

승객들은 모두 비상탈출구를 통해 나왔으며 부상을 당한 23명은 대부분 한국사람으로 알려졌다.

병원당국은 이들은 약간의 찰과상과 골절상을 입었을 뿐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 소방서는 사고현장으로 급거출동, 재발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대비, 비행기 안팎에 물을 뿌렸으나 비행기 자체는 약간 굽혔을 뿐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인근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되는등 한때 경계상태에 들어갔었다.

공항당국은 이 비행기가 현지시간으로 하오9시15분 이륙하려 했으나 충분한 파워가 없어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행기는 서울을 떠나 마닐라를 거쳐 바레인과 쥬리히로 가던 중이었다.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장 한동국씨는 대부분의 승객이 중동으로 가던 한인 및 필리핀 건설노무자들이며 5명의 독일인과 5명의 일본인 그리고 1명의 영국인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 중상 2명, 경상 10명
### 韓國승객 4명 경상

대한항공 미주본사(이사 이태원)은 대한항공기의 마닐라공항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2, 경상10명등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중 4명은 한국인으로 이들의 명단은 ▲이봉례 ▲황종안 ▲김일용 ▲정상호씨등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부상자는 마닐라 산후산 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이다. 부상자중 승무원도 1명 포함되어 있다.

## 트루도 한국대사관저 방문

### 방한준비인듯. 김치맛보며 담소

트루도연방수상은 14일 밤 오타와 서섹스(Sussex)·드라이브에있는 주 캐나다한국대사관저를 비공식방문, 한국음식을 맛보면서 이규현대사 부처와 담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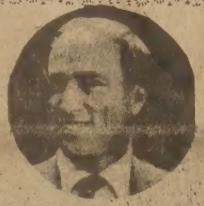
이날 넥타이차림의 트루도수상은 로버트·파울러외교국방보좌관 부처와 함께 대사관저에 도착, 김치, 불고기등으로 마련된 한정식을 들었다.

트루도수상은 특히 김치를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졌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트루도수상은 이대사로부터 한국의 문화, 음식, 풍속등에 대한 애기를 들으면서 예정보다 늦은 밤12시께 자리에서일어났다.

수상의 한국대사관저 방문은 전혀 예고되지않은이례적인 일이었다.

개인적용무의 성격을 띤 이번첫 방문은 캐네디안매스미디어에 일체 알려지지 않았다.



◇트루도 연방정부수상

◇이규현 대사

이대사및 이재관공보관등은 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것을 피했다.

## 교황 노조권 인정

### 최초의 노동회칙 발표

로마 교황청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노동문제에 언급한 회칙(Encyclical Letter)에서 교황 바오로2세는 15일 자본주와 노동자 사이의 계속 악순환된 관계개선을 위해 새로운정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황은 취임후 3번째 발표한 회칙에서 그의 조국 폴란드의 노조「솔리대리티」에 언급, 노동자 누구나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는 있으나 정치체재를붕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교황은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공산주의국가들이나 정치가 노조에 간섭을해도 안되고, 노조가 정치를 좌우해도 안된다고했다.

바티칸 교황청 관리들은 이번 교황의 회칙은 교황의 조국인 폴란드의 노조운동이 공산당 정권자체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칙은 지난5월 교황의 저격사건으로 인한부상으로 늦어졌다.

교황의 회칙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노동조합 : 노조는 노동자의 법적권리와 사회적지위를 위한 대변기관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치권력쟁탈을 위한 기관은 되지 말아야 된다.

(2)스트라이크 : 노동자는파업할 권리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파업은 개별적 보복등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

(3)여성노동자문제 : 여성의 직업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정해져야 하며, 그들 이 할수있는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지말아야 한다.

(4)건강과 임금 : 노동자를 위한 의료시설은 충분히갖추어져야 하며,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은퇴후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히지급되어야 한다.

## 유엔총회 개막

### 신임총회장 선출

(유엔15일=연합)제36차 유엔정기총회가 14일(화) 하오3시35분 155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19년만에처음으로 세 후보가 경합을해서 신임총회장을 선출했다.

신임총회의장으로는 방글라데쉬의 카이저, 싱가포르의 토미코후보를 누르고 이락의 이스마트·키타니씨가 당선됐다. 이날 2차투표에서 전 총회의장 루에디거·폰·베크마스씨가 동수득표의 상황에서 키타니씨에게 표를던져 신임의장을 선출했다.

선거가 끝난직후 총회는 인구 10만7천명의 섬나라「바누아투」를 155 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승인했다.

3개월간 총회중 다룰134건의 의제중 아프카니스탄, 중동사태, 캄보디아와 나미비아등 중요국제분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 의사수입 $5만7천

### 도시중 최고는 마캄

(오타와)의사들의 수입이 치과의사와 변호사를훨씬 앞지르고, 일반 연금수급자의 수입의 거의 10배많다는 사실이 캐나다국세청에 의해 밝혀졌다.

15일 79년도「개인소득세환불」(Income Tax Returns)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세청은개업의와 외과의들의 연평균수입은 57,535달러로서 치과의 51,185달러, 변호사44,660달러, 계리사 35,976달러, 엔지니어와 건축가의 34,569달러보다 훨씬 앞지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반어부들의 연평균수입은 12,625달러, 농업종사자 12,598달러, 교사 21,988달러, 연방정부 근무자들은 17,587달러를 받고있다.

연예인들과 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이들보다훨씬낮은 8,284달러이고, 연금수급자들은 가장낮은 6,335달러를 받고있다.

이번소득세 통계는 캐나다 전국 100개도시를 기준으로 했다.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도시는 온타리오주 마캄시로 16,461달러이고, 가장 낮은 도시는 노바·스코시아주의 시드니로서 9,431달러이다.

## 북해도 일인 밀무역

### 소련에 기밀 제공도

소련영토와 근접해있는 일본북해도 주민들이 소련과 밀무역을 하여 일본당국을 당황하게 하고있다.

「리포센」(Report boat 를 일식영어로 사용한것.) 이라는 배로 밀무역을하는 일인은 주로 어부들로, 이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스타킹, 빨래기계등 일상용품에서 술집여급과 심지어는 기밀정보에 이르기까지 팔아먹고 있다.

밀무역의 주대상은 소련관리들과 천도열도에 주둔한 소련군으로서 밀무역어부들은 천도열도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할수있는 자격을 얻기위해 소련인들과밀무역을 하고있다.

현재 80여척의「리포센」이 북해도를 기점으로 소련과 밀무역을 하고있는것으로 추산된다.

소련인들은 래디오, 빨래기계, TV셑등 일상용품을 비롯하여 사치품을 정기적으로 밀수입 하였고, 소련관리들이 기생들과 주말 관리들이 기생등과 주말을 함께 보내는데 미화 5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일본측 소식통이 전했다.

이중에서 일본당국을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처사는 이들 밀무역 어부들이 소련에게 일본의 신문등정보를 제공하고있는 점이다.

일본신문이나 그밖에 리포센 어부들이 전하는 정보들은 일본주재 소련공관원들이 충분히 쉽게 입수할수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리포센 어부들이 첩자와같은 행동을 하고있는데 큰 자극을 받고있다.

"이것은 첩자행위와 다를바 없다"비록 그들이 소련에게 결정적인 정보를제공하고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짓은 소련을돕는것이다"라고 일본관리는말했다.

한편 리포센 어부들은 "우리는 생계를위해 이일을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로 비밀이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이일로 일본 수즈끼수상은 지난10일 직접이 지역을 방문, 정부와 이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공고히하여 소련과의 밀무역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 낚시회 창립

### 첫 대회열어

(런던 강상권지국장) 런던낚시회 창립기념 낚시대회가 12일 새벽부터 웃·스톡공원에서 열려 민진홍씨가 특등상(한국일보사 기증)을 받았다.

이 대회에는 16명의 태공이 참가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자리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최기운(상점경영)씨가 회장으로 뽑혔다.

특 등(3년배) : 민진홍
한국일보사기증
1 등(대어상): 천장환
2 등(중량상) : 황윤식
3 등(수량상) : 손성호
행운상 : 김성흥
장려상 : 정치욱
숙녀상 : 정지애
아동상 : [illegible]

## 천주교 2 연승

### 런던 야구대회

(런던 강상권지국장) 런던한인회(회장 하광용) 주최 토론토총영사배재발 야구대회에서 천주교회팀 이 우승했다.

5일하오 기본스공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4개팀이 출전 토나먼트를 벌였다.

한인장로교회 청년팀이 2위, 한인장로교회 OB팀이 3등을 차지했다.

천주교9 : 4한인청소년
천주교18 : 6한인장로OB
제일장로교6 : 8한인청소년
제일장로교4 : 5한인장로OB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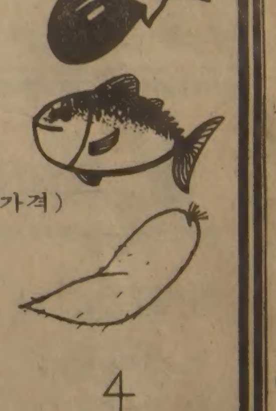
강 학 수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 서울식품 'BIG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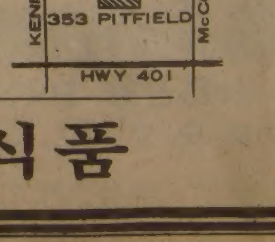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 | | REG. | SPECIAL |
|---|---|---|---|
| ●불고기등심 | Lb. | 2.59 | 2.20(10파운드제한) |
| ●갈 비 | Lb. | 1.69 | 1.29(박스제한없음) |
| ●소꼬리 | Lb. | 1.35 | 1.09 |
| ●참기름깡통(일본제품) | | 10.90 | 9.50 |
| ●한국농장용 배 추, 무, 풋고추 |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 | |
| ●명간장 | 1 gal | | 6.90 |
| ●양잠피 | 1 kg | 2.25 | 1.80 |
| ●삼양라면 |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 | |
| ●삼양냉면 | 1 박스 5인용 | 24.00 | 19.00(1 박스제한) |
| ●청수냉면 | 1 박스 2인용 | 24.00 | 19.00(1 박스제한) |

| | | REG. | SPECIAL |
|---|---|---|---|
| ●오징어젓 | Lb. | | 80¢ (특별가격) |
| ●한국고추가루 | Lb. | 3.50 | 2.90 |
| ●어리굴젓 | Lb. | 4.90 | 2.90 |
|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 | |
|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 | | |
| ●삿보로라면 | | 13.90 | 11.50 |
| ●산요보온밥통 | | 128.00(특별가격) | |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 원영수 치과의사 펠로우쉽 수상
## 총867시간의 수업후

10년여를 개업해온 치과의사 원영수씨(50)가 「치과의사아카데미」(Academy of General Dentist)의 펠로우쉽(Fellowship)을 얻었다.

이 펠로우쉽은 경력이 오래된 치과의사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새 지식과 개선된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펠로우쉽은 치과의사아카데미 가입자로서 500시간이상 수업을 치러야 한다.

70년도에 카나다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아 71년 1월부터 해밀톤에서 개업한 원씨는 수년전에는 토론토에도 진료실을 차려 두지역서 진료하는 틈틈이 총 867시간 수업을 받았다.

50세를 갓넘은 원씨는 미국 버팔로대학등지 에서 1년에 약 194시간을 재교육 받았다.

신앙심이 깊은 모교회 장로로 알려진 원씨는 "나는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였을 뿐이다. 마음을 단단이 먹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에도 이상이 없이 해낼 수 있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재교육 받던 당시를 회상했다.

한국 치과의사로는 최초의 펠로우쉽 소지자가 된 것으로 알려진 원씨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있은 펠로우쉽 증서 수여식 사진이 최근 도착하자 "장랑스럽다는 생각보다 좀더 노력해서 마스터쉽까지 받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마스터쉽은 펠로우쉽 소지자로서 강의 200시간, 임상교육 400시간을 받을 때 수여되는 자격증으로, 일반의사로는 최고의 명예이다.

북미에는 펠로우쉽 소지자가 금년에 3백여명이 새로추가 현재 약3천명 있다. 마스터쉽은 28명 뿐이다.

◇펠로우쉽을 받은 치과의사 원영수씨(50)

# 6順位 82년까지 폐쇄될듯
## 美국무성 10月永住權문호 발표, 2順位 다시오픈
## 5順位 78년9月15日까지申請者에 비자發給

10월의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다.

지난달에 잠시 중단됐던 2순위가 오픈됐으며 5순위는 8월달과 변함없이 78년 9월 15일신청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6순위는 계속 문호가 닫힌 상태인데, 국무성관계자는 82년도까지 계속폐쇄될 상태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10월 영주권 문호는 다음과 같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오픈
▲2순위(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오픈
▲3순위(학예·특기전문직)—오픈
▲4순위(시민권기혼자녀)—오픈
▲5순위(시민권형제자매)—78년 9월15일
▲6순위(취업)—폐쇄.

## 체전참가비위해 세차 미주대표 축구선수단

미주대표 축구 선수들이 체전에 참가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차를 하고 있다.

제1회 미주체육대회우승팀인 남가주 한국대표축구선수들은 62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2만2천여불의 여비를 조금이나마 벌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매주말 올림픽 외환은행 파킹장에서 세차를 하고있다.

어려운 이민생활에 부모들과 독지가의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워 주중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는 축구연습을 한뒤 오후부터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차를 하는 우리선수들을 본 한 할아버지는 이들을 위해 숨겨둔 20불 한장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 여비마련 세차는 앞으로 19일, 20일, 26일, 27일에도 하는데 교포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대만, 재가입희망 국제 역도연맹에

〈릴레·프랑스—UPI〉 대만은 국제역도연맹(FIH)에 재가입 하기를 희망했으며 FIH측은 신청여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대만역도 연맹에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이같은 대만의 제의를 환영하면서 중공과 대만이 국제대회에 나란히 참가하는데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것을 나타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 한인와이즈멘즈클럽 강연회·전시등 행사

토론토한인와이즈멘즈 알파클럽(회장 차선겸)은 18일(금) 하오7시 퀸·스트릿·웨스트의 쉐라톤호텔 에서 월례회를 가진다.

이날 모임에서는 외환은행 이수근씨의 경제문제 강연이 있다.

한편 알파클럽은 양로원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 한국작가 (미술가)초대전시회를 갖는다.

10월8일~13일 쉐라톤호텔에서 있을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에서 이양원·유종민·조용각·한풍렬 4씨, 캐나다에서는 장연탁·나영삼(이상 토론토)· 권숭연(캘가리)의 3씨가 출품한다.

전시시간은 10월8, 9 양일은 하오6~9시30분, 10(토)은 하오2~9시30분, 12, 13일은 하오6~9시30분이다.

베타클럽(회장 이석현)은 29일(화) 하오6시 30분 토론토한인Y회관(15 Robina Ave.)에서 월례회겸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은 황용현씨(부동산중개업)와 「Credit Buying 의 상식」이다.

한편 베타클럽은 19일(토) 하오1시30분, 스카보로 지역 시다브레(Cedabrae)도서관(545 Markam Rd. Scarboro)이 주최하는 백인들과 한인 친선 공동추석 윷놀이를 후원한다.

이 추석놀이는 한국문화·관광영화·한인Y 무용부의 한국무용 감상을 곁들여 한인과 캐네디안 각 1인씩 한조를 이룬 윷놀이 토너멘트를 벌이며, 시상식으로 행사를 다 마친다. 또한 송편·약과등 한국음식 시식도 있다.

◇선거연단 : 아더·알렌이 소책자를 밑으로 뿌리며 「자유의 여신상」왕관위에서 「시장선거유세」를 벌이고 있다. 경찰(여신상 창문을 통해 올라가는 사람)이 이 「정신병자」를 끌어내리려 하고있다.

## 15세소년 가출 20대 여교사와 동거

(뱅쿠버)15세 소년의 부모가 BC주 대법원에 솟장을 제기, 그의 아들과 여교사의 3년간 계속된 성적관계를 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사건담당 변호사는 어린이선도 위원회는 소녀가 아닌 소년이 관계된 사건이므로 아무런 대책도 세울수 없다고 했다 전했다.

이 소년의 부모 콜리아씨 부부는 솟장에서 자기 아들이 3년전 국민학교 6학년때 담임선생이던 이여성이 자기아들을 유혹, 성적관계를 계속해 왔고, 지난 8월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해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20대 중반의 이 여교사는 성적유혹과 물질적유혹으로 이 소년과 동거생활을 하고있다고 부모들은 주장했다.

솟장에붙은 청원서에서 부모들은 연방경찰, 검찰, 보사부등에 아들을 보게해 달라고 했으나 아들은 강제로 부모집에 '가게하면도망가겠다고 위협,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했다.

변호사 버나디노씨는 이들 기관들의 태도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만일 소녀와 남선생의 관계라면당장 조처를 취했을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솟장에서 이런 관계는 아들의 정신적·성적감정을 해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 여교사는 지난 8월23일 집에찾아와 스포츠구경 간다고 아들을 데려간후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부모들은 말했다.

여교사를 만났던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는 여교사가 성적관계가 있음을 시인했고, 관계가 로맨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모는 솟장에서 이교사가 자기아들과 만나는것을 금지 시켜주고, 아들을 집에 돌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 3만섬 Y단풍관광 현지서 경로잔치도

토론토한인YMCA(총무 김창열)는 10월3일(토)상오 9~하오8시 제15회"YMCA 와함께 즐거운 여행을" 실시, 3만섬 단풍관광을 실시한다. 인원은 선착순 90명 제한, 참가비는$22, 노인$21, 어린이$20이며, 관광버스대및 유람선대로 충당된다.

알파와이즈멘즈클럽은이 관광여행의 목적지 3만 섬에서 경로잔치를 벌인다.

## 김유수씨 사교댄스 개강

오는10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매주 목요일 저녁) 427 Bloor St. W. 에서 사교댄스 강습이 열린다.

지도교사는 김유수씨(Education Canadian Dance Class교사).

강습종류는 다음과 같다.

초급 : 하오7 : 30~9 : 00 부루스, 지루박, 월츠, 도롯도
중급 : 하오9 : 00~10 : 30 탱고, 차차, 몬카
고급 : 하오9 : 00~10 : 30 고급 스탭

## 결혼축하

신랑 : 정유성씨 제 유흥군
신부 : 김오석씨 장녀 명리양
때 : 9월19일(토)하오1시
곳 : 한인교회 (353 서번·스트릿)
주례 : 유 재 신 목사

## 社告

# 全美洲 교포청소년 文藝콩쿨
## 중고대생중심 국·영문작품 모집·표창
## 조국애고취내용, 장원 2명선정, 모국관광 부상

북미교포청소년의 조국애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본보는 전 미주 청소년 문예콩쿨을 주최하여 조국과의유대를 높이기로 했읍니다.

미주내의 중·고생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참여도환영하는 청소년 백일장은주미한국대사관, LA한국문화원,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하고 있읍니다.

이 백일장에 제출하는작품은 시사체 수필문으로서 재북미 동포사회의 애국심고취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갖는 주제이면 어느 작품도 환영합니다.

작품은 한글이나 영어중 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는 한글일 경우, 타자지 10매이내, 영문일 경우 5매이내로 하면 됩니다.

전미주 규모로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문예콩쿨참가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작품에 대해 장원, 우수상, 가작등을 선정하여 표창합 니다.

제출된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2명은 장원으로 선정, 문공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6박7일동안 본국 관광을 제공 합니다.

그리고 우수상 3명과 가작 수편을 선정, 상패와메달로 노력을 높이 평가 합니다.

이번 청소년문예 콩쿨에 제출한 작품은 본사에서 오는 9월30일(수)까지 마감하며 당선작 발표는 10월22일 지면을 통해 공고합니다.

미주속의 한국인이 문화민족이란 긍지를 높여주는 청소년문예콩쿨에 교포여러분의 성원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각지사 접수, 9월30일마감, 10월22일 발표**

# 양 심 의 해 방 ①

1. 성경적 근거

1. 신앙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오늘날교인들에게는 다분히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순되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는 즉시 모든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식과 깊은 관계가 있기때문에 믿음이 생기자마자 주님 안에서 영이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아무런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 28) 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안에서 영, 곧 양심이 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읍니까? 마음에 고달픔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주님을 참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안에 자기의 것" 즉 죄나 죽음이나 기타 일체의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보다 더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고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믿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아, 참으로 괴롭다. 안 믿으면 지옥 갈갔고, 믿자니 힘이 들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상태의 마음은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오로지 어머니 안에 있읍니다. 자산을 알지 못해도 어머니의 것은 전부 자기의 것입니다. 자신은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내 스스로 염려하지 않게됩니다. 이것이 안식이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또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참고 : :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교회에 시무하며 가정 문서선교회 총재로 있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쓴〈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란 소책자나 거듭 난 경험 이후에 오랜 옥중생활속에 엮어진 존·번연의 〈천로역정〉을 참고하여 읽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신도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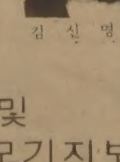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안락한 의자

미용체조에 열중하고있는 미인의모습이 아니다. 여체를 본떠만든 가죽의자. 누워있는 여자마네킹이 의자역할을 한다. 최근 서독실내장식가 존스씨가 고안한 이 의자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안락한 걸상」이다.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5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사교댄스 (강습)

기 간 : 10월8일~12월10일(매주목요일 저녁)
지도교사 : 김 유 수(현 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ass교사)

초급반 : 7 : 30~9 : 00 부르스, 지루박, 월츠, 도롯도
중급반 : 9 : 00~10 : 30 탱고, 차차, 폴카
고급반 : 9 : 00~10 : 30 고급스탭

장소및등록처 : Y. KIM—427 Bloor St. W. TRINITY UNITED CHURCH
문 의 처 : TEL : 922—8435
회 비 : 싱글 $45, 커플 $70

※체계적인 교안과 실습을 통해 철저한 책임지도를 함.

#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 장: 이 형 안
부 회 장: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김 태 진
부이사장: 전 윤 식

## 협회살림 알차졌다

이달 말로 회계년도가 마감되는 협회살림살이 형편이 차츰 알차졌다. 즉 협회의 예산은 매해 9월말에 결산을 하고 새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어 집행하고 있다. 81년도 예산은 지난 봄 한 차례의 갱정예산을 거쳐 년간 10만달러가 넘는 방대한 예산이었는데, 예정된 수입원이 제대로 입금되어 부족됨이 없었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액도 전년도보다 성적이 우량하다 정기총회 직전까지는 아마도 100%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실무자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알뜰한 임원들이 긴축예산을 펴와 약 3만여 달러의 이월금이 생길 것이라고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를 마추어야 밝혀지겠지만 이는 날로 급변하는 경제속에서 치솟기만 하는 물가, 인건비 그리고 은행이자의 상승등 여러 앙등 요인을 감안하여,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응급사태를 위하여 예산을 절약 유보시켜온 결과라고 한다.

아무튼 협회 살림살이가 알차졌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있는 여러회사(Manufactures)들과 도매상(Wholesaler)들과의 거래에서 집약된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이룩되어진 것이며, 여러 회원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것임을 알수 있입다.

## 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많은 관심을

그동안 협회의 관계자들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협동조합설립문제가 한층 밝아져 가고 있다 한다. 협회 이사회내에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검토해오던 작업이 한층 무르익어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주(Share)를 갖는 조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11월말에 예정된 정기총회때까지는 그 뚜렷한 윤곽이 들어나서 회원들이 그동안 기대해오던 꿈이 실현되는 날이 다아온것 같다.

이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하는 물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회원이든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 아니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포들의 생각도 같다고 하겠다.

협회가 생기면서 우리가 찾은 권익은 방대하다면 지나친 과장일지 모르나, 여하간 혜택을 입는것은 사실이다. 역대의 집행부 임원들이 노력한 결과 볼 수 있다. 누구누구가 어떤일을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일의 한계성을 깨닫고 그러한 장벽을 헐어내리고 보다 더 큰 이익을 찾어보자는 뜻에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밤낮 머리속에 그리어 오던것이 바로 이 협동조합의 설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작업은 회원 누구나의 숙원한 과제였다.

그 숙원사업이 이제 태동기를 벗어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여야 그 작업을 성취시킬수 있느냐의 싯점에 온 것이다. 일부 관계자의 손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전 회원이 아니 전 한인 교포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의견과 방향, 또 실제로 어떻게 출자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중지와 관심이 요구되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마도 태동기가 길었던 것처럼 출발하는 싯점에도 여러가지 난점들이 있을 것이다. 협회가 모체가 되어서 추진하지만 협회내의 회원들 자체에서의 문제, 법적인 난점들, 경쟁자들의 방해 내지 와해공작등등… 그러나 그중 남의 일처럼 대하는 무관심의 자세야말로 가장 무서운 방해자일 것이다. 그렇다.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체가 바로 서로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한다는뜻이므로 협동에 배치되는 무서운 적은 비협동, 비협조,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협조하여 힘을 모아 공동구매, 신용업무등을 다루게 될 조합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우리 다같이 협동조합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내일을 향해 합창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해 보자.

## 4차정기 이사회

본 협회는 9월말로 회계년도를 마감하게 되고, 82년도 신예산편성과 11월말로 정기총회를 맞게 되어진 스케쥴에 의해서 제4차 정기이사회가 9월25일 금요일 오후7시30분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회칙 제13조1항에 의거하여 소집되는 것이며, 의제로는 업무및 재정보고, 각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총회준비에 대한 사항들을 토론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한편 9월11일 저녁 11시 이사회의 선거관리 위원들이 협회사무실에 모여 11월말로 예정된 정기총회 준비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임기를 마치게되는 집행부의 회장등임원선거에 대한 세칙을 가다듬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하여 발표케 될 것이라고 한다.

## 회비납부하자

회원들의 뜨거운 협조에 의하여 협회 회비(년$50)가 원만히 징수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회비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뜻이 있으며, 겸하여 권리를 주장할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이 회칙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비를 미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다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의 회계년도는 9월말로 되어있어 모든 업무의 정리와 예산집행의 결산 그리고 감사를 마치고 신년도 협회 살림살이의신 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11월말경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구성하는 선거가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차질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회비납부 상황은 60% 정도인데 100%의 징수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고 이봉재 선생 1주기 묘소에 헌화

**1년전 9월15일밤, 불의에 2명의 권총강도에 의해 살해된 고 이봉재 선생의 1주기 추도일을 맞아, 최초의 본 협회 회원의 희생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임원, 이사일동은 17일 홀리 크로스 세메터리(영 & Hwy. 7)에 있는 고인의 묘소에 헌화하였다.**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61)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흥 옮김**

텐트를 친 호수변에는수천개의 질이좋은 사슴가죽을 장대에 매달아놓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가죽을문지르고 닦아내고 있다.

약 1주일전에 카약을 타고 사슴이 온다고 손짓을한 후로부터 정신없이 사슴을잡던 흥분은 가라앉고 사슴도 멀리 사라져 버렸다. 사슴이넘는 길목엔 이제 죽은놈만 남아있다.

눈이내리자 사람과 까마귀만 빼놓고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다. 뇌조, 여우, 쪽제비, 할것없이 모두 하얗게 털을바꾼다. 흰올빼미는 멀리 북극으로부터 날아오고, 북극의 늑대도눈처럼 하얗게 털을 바꾼다.

이제 겨울이와서 큰 사슴떼는 가버렸지만 아직도 황량한 겨울평원에도 사냥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산속에있는 골짜기는 아직은 눈이깊게 쌓여있지않고, 산이 바람을 막아주어 어떤곳은 눈이전혀 닿지않는 전나무숲이 그대로 있어서 그속에 갇혀있는 사슴들이 많이 있다.

만일 운이없거나 사고에의해서 겨울준비로 고기를장만하지 못한 집들은 아직도 사슴을 잡을기회가 있다.

겨울의 툭투사냥은 숫자가 많지않으며, 넓은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조심성이많기때문에 사냥하기가 쉽지않다. 다만 눈이 깊게쌓이고 눈이 심하게 내릴때만 사냥을 할수 있다.

사슴을 통 잡지못하면덫을놓아 쉽게 잡는다.

싱싱한 고기를 먹고싶을때 사냥꾼은 눈구덩이를판 구덩이에 높게 벽을 세우는데 한쪽에는 따딱한 눈으로 경사를지게 해놓는다. 꼭대기는 구덩이를 감추도록 얇게 눈으로 덮어놓고 미끼로 한줌의 이끼나 더 좋은것으로는 사람이나 개의 얼어붙은 오줌을 사용한다. 이상하게도 사슴은 먼데서부터 오줌냄새를 맡고 쫓아온다. 오줌은 소금기가 있기때문에 이것을먹으려고 주저함이 없이 덤벼든다.

늑대도 이런 사슴의 습성을 알기때문에 주위에사슴이 있는것을 눈치채면오줌을 누어놓고 숨어있는다.

어떤때는 눈이 구덩이를 팔 정도로 깊지않기 때문에 사슴이 겨우 들어갈만큼 눈속에 경사진 구덩이를 파놓고 그속에다 미끼를 놓아둔다. 사슴이와서 이 경사진 눈속에 빠지면 뒤로 나오지도 못하고 또 뒤돌아 설수도 없기때문에 잡히고 만다. 간단하게 이것이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기억할수있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수있는 지난과거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너무나 비참해서 이 사람들에게 현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졸라보아도 도무지 해줄려고 하지않았다.

얼마까지는 내가보고 또 프란쯔에게서 그전에 들은 이야기 이외는 아무것도알수가 없었다.

그후 조금씩 최근에 일어났던 몇개의 이야기를주어모으기 시작했고, 드디어 1947년봄 리틀힐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보면 그들의 현재생활을 짐약해볼수있게 된다.

프란쯔가 쿠니와 아노릴릭의 두 고아를 발견한그 처참했던 봄에 오텍 쿠마닉의 가족에게 일어났던사건은 이미 전장에 쓴바있다. 도움을 얻을려고 동쪽으로 달아났던 다른 새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바가 있다. 이제 그들의이야기를 주제로 설명을하면 독자들은 내가 왔을때 본 평원에 살고있는 이들의새로운 생활을 알수 있으며 또한 이할미우트가 어째서 한때 사슴이 풍부하고 생활이 풍족했던 기억을갖고 그곳에 아직도 머물러 살고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것이다.

이 이야기는 주로 오호토가 나에게 들려준 그당시 1년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이 세부적인 이야기 중에는 오텍과 오울릭톡 한테서 특별히 얻어낸 정확한 정보이다. 그러나 어떤곳은 이들 남녀에 관계되는 내가 알고있는사건의 계속적인 자료와 또 내가 이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것을 보태기도 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지금이야기하는 모든 사건의 세밀한 부분은 완전히 사실적이랄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할미우트가 겪었던 최근의 봄에 일어났던 진실한 사건이다. 주로 오호토가 이야기 한것이에기때문에 다음은 그로 하여금 대변하도록 한다.

(계속)

빠른 소식!
크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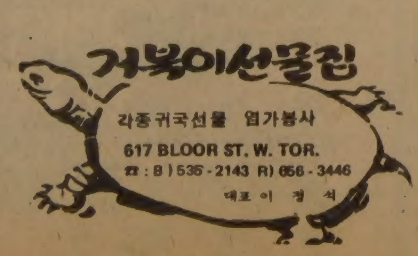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Bloor　Keele　Bathurst　Bayview　CHINA HOUS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ROYAL RESTAURANT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6, MRS. THOMAIDIS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경험있는 가게헬퍼 구함 :
월급 : $1140
☎ : 923－3574

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남자분을 원합니다.
☎ : 248－6555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GAS ATTENDANT :　☎ : 782－6311

가게일 도우실 젊은 남자분 :
주6일 근무(월, 수, 목, 금, 토, 일)
Long Hours (AM9시30분～10 : 30PM)
주급 : 380달러(STARTING PAY)
☎ : 532－2961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웨이트레스 구함 :
풀타임과 주말 파타임
☎ : 757－6334

쥬스바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5시 이후 연락바람
☎ : 438－0403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정원사 HELPER구함 : 연령제한 무
풀타임 또는 파타임
☎ : 653－8173 MR. 강

## 매매및 양도

바쁜 프라자내 CONVENIENCE스토아 : 주매상 : $6300
보증, 리스 : 5년, 아스킹 : $59,000, 이상적인 패밀리 Operation
☎ : 766－9968 3437 st. Clair Av. E. 와 Birchmount
HELLENIC REALTY LTD.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6107 YONGE ST.
☎ : 223－7278 JOHN.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좋은지역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사실 절호의 기회. 6년계약 싼 렌트. 아파트살림집 포함.
☎ : 654－4410, 635－8405 MR. 리타 리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줌)
☎ : 781－7305

시간 짧은 MALL안에 있는 스모크 샵
주매상 : 3천5백달러,
PICK UP드라이크리닝 : 주매상 1500달러,
드라이브 인 햄버거 플레스 : 주매상 6000달러
장래성 있는 베커리 도나스 가게
☎ : 741－9170, A. E. LEPAGE LTD. MRS. WOO

**전화 후렌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코너 소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성업중인 픽 · 업 세탁소 팝니다 :
2687 EGLINTON AVE. W.(KEELE근처)
☎ : 656－4727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0463

— LANGLEY의 40에이커 —
단 395,000달러로 땅을 살 수 있는 좋은기회.
전망좋은 지역, 땅으로 가지고 있거나 빌딩을 지어도 좋음.
관심있는 분은 ALAN CRAWFORD에게 연락요.
☎ : 533－1411 WOLSTENCRAFT

건물및 비지네스 매매 : 주매상 6500달러이상
스토아 매매 : 4200달러이상
☎ : 535－7200 MR. 김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홍성 · 이인식)

PALMER'S시설 판매수리 :
에어콘, 전기, 개스, 워킹쿨러, 후리저
☎ : 746－3840(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강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번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 식 품 점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헌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일
669－5784　MR. 심

## 기　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새한칼라 현상소**
636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나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 유럽 美陸軍司令官 被襲

## 나토機動훈련중…그로젠大將(兼나토軍副司令官) 負傷

◇한스·아펠西獨국방상㊨이 14일 이곳에서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의 秋季기동훈련에 참가하고있는 부대를 방문, 병사들을 격려하고있다。이 부대는 병력,무기,차량등을 헬리콥터로 이동시키는 상륙작전을 벌였다。【트로싱겐 (西獨) 14日UPI電送=聯合】

## 西獨서 출근길 수류탄·銃擊

### 極左赤軍派 "우리所行"주장

【칼스루헤15日AP=聯合】 유럽주둔 美지상군사령관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부사령관 프레데릭·크로센대장이 15일 상오7시20분(한국시간하오2시)께 서독 하이델베르크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부상했다고 서독경찰이 발표했다。경찰에 의하면 크로센 대장은 이날 아침 승용차를 타고 미군사령부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승용차가 교통신호에걸려 정지했을때 뒤에서 수류탄이 날아왔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어졌으나 크로센대장의 부상은 현지 미군병원에서 진찰결과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독 경찰은 수류탄폭발과 함께 8발의 총격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프레데릭크로센司令官

이번 사건은 서독에 주둔하고있는 나토군사시설과 군및 요인암살기도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2주일전에는 유럽주둔美공군사령부이자 나토공군작전센터인 람슈타인공군 기지에서 폭탄이 폭발 20명이 부상했고 지난4월에는 비즈바덴의 美공군기지에서 폭탄이 장치되어 있는것이 발견되었다。

이번사건의 범인은 아직확인되지 않았는데 극좌적군파는 람슈타인 폭발사건이 자기들의 짓이라고주장했었다。

크로센대장은 2차대전이후 습격을 받은 미군관리중 가장 지위가높은 사람이다。美軍헌병과 서독경찰은 사건직후 주변을차단하고 수사를 펴고있다。

하이델베르크에는 현재 미군24만명이 주둔해있는데 2차대전이후 미군에대한 습격이 가장심했던 지역중 하나다。

미군들을 상대로한 습격은 주로 적군파에 의해 저질러졌는데 안드레아스·바더등 적군파지도자들은 지난72년 하이델베르크 캠벨기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등과 관련,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바더는 복역중 감옥에서 자살했다。

적군파는 지난79년 헤이그 나토사령관(당시)이 피격했을때도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시게릴라 그룹으로 70년대 후반까지 西獨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던 적군파는 이번 反美캠페인을 고비로 다시 기세를 되찾은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 나토、戰後최대 機動훈련

## 13개國 30萬참가 바軍侵攻 防禦力점검

【베를뢰제공군기지(덴마크)14日路UPI=聯合】 2차대전후 최대규모의 소련군기동훈련이 끝난것과 때를같이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14일 북부 노르웨이로부터 남부 터키에 이르기까지 13개국 30만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육·해·공군합동연례秋季기동훈련을 개시했다。

바르샤바조약군의 공격에 대한 나토군의 방어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이번 연례훈련은 버나드·로저스 나토군총사령관이 코펜하겐교외 베를뢰제공군기지에서 앰버·익스프레스 훈련에 참가하는 8개국 병사들의 열병식을 참관함으로써 개시됐는데 美國·英國·캐나다·덴마크·벨기에·룩셈부르크·이탈리아·서독군 2만2천명이 참가하는 『앰버·익스프레스』(琥珀特急)훈련은 지난주 소련이 전후 최대규모의 기동훈련을 실시했던 발트해지역으로부터 수백㎞ 떨어진 질랜드도에서 실시될 예정으로있다。

앰버·익스프레스훈련은 나토연합기동타격군(AMS)및 다국적부대의 배치훈련으로 그 목적은 AMS및 다국적부대에 대한 공격이 곧 나토연합군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

소련군 기동훈련이 끝난지 이틀후에 실시되는 이번 나토군 기동훈련은 약30만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노르웨이 북부로부터 터키에 이르기까지 모두 26개 훈련을 11월초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동훈련의 일부인 암호명 「서튼·인카운터」(어떤해후)기동훈련이 이날 동·서독접경지역 라인란트등 서독의 광대한 지역에서 7만1천명의 미·서독·영국군이 참가하는가운데 개시됐다。

## 美·日합동 海上훈련 23~30일史上처음

【東京14日=聯合】 일본해상자위대는 오는23일부터 30일까지 병력1만6천명 함정90척 항공기90대를 동원, 미제7함대와 합동으로 사상최대규모의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동해에서부터 오끼나와(沖繩)및 南西諸島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에서 실시될 이번 훈련은①쓰시마(對馬)도해협방위를 포함한 시꼬꾸(四國)및 규우슈(九州)연안방위②남서항로대의 해상교통로호위를 목적으로실시된다。

특히 남서항로대방위연습구역은 미국이 역할분담의일환으로 요청하고있는『주변1천해리방위』해역의 80%에 해당하는 북위24도부근까지 미치고있다。

# 일부部處는 複數試案제출

## 機構축소 外務등5部處제외 자체案確定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 機構축소 改編작업을 벌여온 행정各部處는 試案의 보고 時限인 15일 외무부와 통일원등 5개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自體試案을 확정, 총괄부처인 총무처로 넘겼다。

이날현재 試案을 제출한 부처와 제출못한 부처가 어느부처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총무처관계자는 이날 보고가 늦어지는 일부 부처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자체試案을 마련토록 촉구, 당초 일정대로 정부기구 전반에 걸친 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20일까지 기구축소 最終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각부처 보고시한인 이날까지 자체試案을 확정, 보고하지 못한 외무부는 18일까지 연기를 받았으며 통일원의 경우도 해외출장중인 李範錫장관이 귀국하는 오는 21일까지 연기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부처의 경우는 이날 대부분이 試案을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부처의 경우는 複數試案을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또 일부부처는 人事때 조정대상 局課의 자리를 메우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최근 人事에서 재무, 수도, 환경국등 3개국장을 겸직발령하고 새마을담당관 교육원 교수부장등 일부職에 대해서는 아예 空席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 ◇部處別 조정내용

| 部處別 | 縮小 조정 내용 |
|---|---|
| 기획원 | 외자관리국을 폐지, 경제기획국에 통합。經協조정관을 비롯 예산실에서 1~2자리, 통계국과 공정거래실에서 1~2자리등 4명의 부이사관 감축。 |
| 외무부 | 外交安保局을 폐지하고 통상국과 국제경제국을 통합。조약국의 국제기구국 흡수 또는 阿洲局과 中東局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의전실장은 의전장으로 명칭변경。 |
| 내무부 | 1室1차관보 5局의 골격을 그대로둔채 자연보호담당관(부이사관) 지방행정연수원 부원장(이사관)직을 폐지。지방행정국의 새마을주택과, 財政局의 지방세심사과, 개발국의지역지도과, 민방위국의 시설과등 폐지。 |
| 재무부 | 국제금융차관보폐지。局의경우 국제금융국과 외환국을 통합하고 재정금융심의관을 없애는 대신 理財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계획。課의경우 5개자리를 없앨방침。 |
| 법무부 |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심의관, 법무연수원부원장,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교정국과 출입국관리국의 3 [illegible] |
| 문교부 | 1개국을 축소。축소되는 [illegible] 별도課축소는 없을듯。 |
| 농수산 | 農産·畜産차관보 폐지, 種畜場長직급을 2급으로 격하。농지관리국과 농지개발국을 農地局으로 합치고 농업기획관과 농산물검사소부소장, 종축장副場長제도 폐지。원양담당관과 연근해담당관을 없앨방침 |
| 상공부 | 경공업,기업차관보를 폐지하고 공업차관보,상역차관보, 기획관리실장으로 개편。局의 경우 유통국,공단국과 기업지도관,종합계획관 통상진흥관등의 폐지검토。課의경우 10개課 축소방침。 |
| 동자부 | 광산보안관리관, 정책조정관을 폐지。광산보안관리관밑의 2명의 담당관을 1명으로 축소, 석탄국으로 흡수。 |
| 건설부 | 국립지리원장을 2급으로, 地圖부장과 測地부장을 과장급으로 격하。産業立地局을 없애고 光州國과 裡里國을 합쳐 湖南國으로, 大邱國과 釜山國을 합쳐 嶺南國으로 개편。해외협력관과 수도권정비관 폐지。 |
| 보사부 | 정책조정관, 母子보건관리관을 폐지, 母子보건관리관실과 해외이주국을 통합。인구정책국신설。또 각局·課별로 기능을통합·조정해 서기관급 41개자리를35개로 축소。 |
| 노동부 | 해외근로국과 직업안정국을 통합, 1개국을 줄여 6局에서 5局으로 축소。部승격때 기구확장을 하지않아 대폭 조정없음。 |
| 교통부 | 수송조정실을 수송조정국으로 바꾸어 직급을 2,3급으로 낮추고 관광진흥국과 관광지도국을 관광국으로통합。안전감사관은 안전관리관과 감사관으로 분리。課의 경우 관광국이 6개과에서 5개과로 축소。 |
| 체신부 | 계획,電務,保全局이 내년1월발족될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가게돼 우정, 경리국만남게된다。郵政局은 換貯金業무를 분리, 환대체국을 신설할 방침, 外局인 전파관리국을 본부로 가져올계획。 |
| 문공부 | 국제교류국과 문화재관리국의 기획관리관 폐지。현충사, 7백義塚,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을 서기관으로 下向조정。해외공보관의 4개부장을 2개부장으로 축소방침。방송관리국을 課로축소。 |
| 총무처 | 1급3명과 2급2명등 46명내외의 定員을줄인다는방침。중앙공무원교육원부원장과 소청심사위원중 2명을축소。 |
| 과기처 | 원자력안전국과 원자력개발국을통합。 |
| 통일원 |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정책기획실, 조사연구실, 교육홍보실을 모두局으로 下向조정방침。최종시안은 外遊중인장관이 귀국하면 확정계획。 |
| 서울시 | 지난11일 인사때 겸임발령이된 재무·수도·환경국과 공석으로남겨진 새마을담당관, 교육원교수부장, 지하철건설본부차장, 문화공보관등 7·8개 자리가 축소될방침。 |

## 南總理 어제귀국

南悳祐국무총리는 유럽 4개국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인 崔惠淑여사와 함께 15일하오 7시30분 KAL便으로 귀국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日議員 61명來韓

## 오늘韓日議員聯 합동총회개막

韓日의원연맹 제9차 합동총회가 16일 新羅호텔에서 개막, 이틀동안 安保협력에 대한 의견조정등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야스이·켄(安井謙) 韓日의원연맹일본측 회장등 日本의원단 61명은 15일하오 JAL편으로 來韓, 聲明을 통해 「지난번 韓日각료회의는 양국이 반드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수없지만 의원외교를 통해 상호이해를 깊이하여 韓日양국관계가 긴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韓日양측은 이날 하오4시 합동운영위원회를 열고 17일 閉會와동시에 채택할 공동성명의 文案내용등을 협의했다。

李載灐한국측회장은 이날 저녁 신라호텔에서 日本대표단을 위해 리셉션을 베풀었다。

총회는 16일 開幕式에이어 각 分科委별로 議案토의를 갖는데 한국측은 ▲安保外交분야에서 朴敬錫의원(民正)의 「東北亞평화와 韓日양국의 역할」 ▲사회 문화분야에서 孫世一의원(民韓)의 「韓日양국간의 이해증진과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 ▲경제분야에서 崔明憲의원(民正)의 「韓日경제협력의 새次元」 ▲法的지위분야에서 趙一濟의원(국민)이 「在日한국민의 法的사회적지위 향상에 관하여」라는 主題발표를 한다。

이어 17일에는 전체회의를 가진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년5개월만에 來韓한 日議員團 61명

◇약2년5개월의 空白끝에 韓日간의 현안문제해결을 측면지원하려는 議員외교가 본격再開되었다。야스이·켄(安井謙)회장(사진·焚香)등 日本의원단 61명은 15일 서울도착과 동시 제일먼저 국립묘지를 찾았다。抗日愛國烈士와 護國英靈들이 잠들고있는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日本의원들은 과연 지난날 植民統治때의 罪科에 얼마나 반성했는지 궁금하다。【金海雲기자찍음】

광고문의 533・2361

##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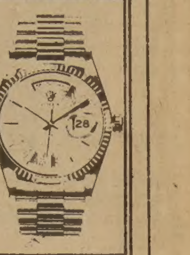
군살빼기 한창…

## 地平線

하늘에서 쏟아지는 노란 비에맞으면 몸이 바짝 바짝 타들어가는 生化學戰을 캄보디아·라오스·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고 미국이 밝혀 전세계를 놀라게하고있다。▼죽음의 비인 옐로 레인은 로키트나 저공비행을하는 항공기로부터 액체 또는 분말로 살포된다。피부에 닿거나 몸안에 흡입되면 체력이 약해지고 경련이 일어 코·목·눈·장위에서 과다출혈이 생겨 수분만에 목숨을 잃거나 병신이 된다는것이다。트리코테신·미코톡신이라고 불리는 이 치명적 세균성독소는 미국전문가들에 의해 4년전부터 수거되어 1차세계대전때 독일군이 사용한 포스킨으로판명되었다한다。T2톡신으로알려진 미코톡신은 곰팡이에서 추출한 것으로 소련농토에 많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련군이 직접쓰였으며, 캄보디아서는 베트남군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核武器보다 더 무섭다는 生化學戰으로 적을 기습하는 일은 예부터 있었다。제일 오래된 것으로는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시체를 기원전4세기에 알렉산더대왕이 石弓으로 投射한 일이다。14~15세기의 英·佛백년전쟁에선 페스트시체를 우물에 던졌었다。1763년엔 영국군이 天然痘患者가 쓰던 담요를 인디언진지에 보내 天然痘를 유행시킨일도 있다。1940년에는 일본군이 중국에 페스트균을 뿌렸다고 비난이 물끓듯했는데 끝내 實證되지는 않았다。▼化學兵器의 경우 기원전5세기에 스파르타군이 아테네공격때 硫黃과 송진을 태워 亞黃酸가스를 만든일이 있다。1차대전부터는 毒가스가 사용되었다。1914년 프랑스군이 催淚彈을 먼저썼으나 15년엔 독일군이 3만개의 鹽素통에서 5분간 鹽素를 방사했다。이毒가스로 연합군이 1만5천명의 死傷者를 낸것은 너무나도 유명하다。化學戰이 本格化되면서 催淚劑·窒息劑·糜爛劑가 출현하고 防毒마스크가 등장했다。1925년엔 生化學武器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協定이 조인됐으나 실효를 거두지못했다。2차대전때는 루스벨트의 금지제안과 報復宣言으로 그 사용이 좀 줄었다。그후엔 65년에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人命에 관계없는 枯葉劑를 살포했다。▼미국은 1969년 지구인구의 30배인 1천억명을 몰살시킬 수있는 生化學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까지 했다。하나 소련은 아프간 點전에서 黃雨作戰을 펴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난셈이다。74년 유엔총회에서 生化學武器 금지안이 가결되었는데 인류평화를 위해서도 미흡한 소련의 흉계가 뒤늦게라도 폭로된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9
은: 온스당 US 10.1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532-2727

제1회 카나다 한국인청소년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카나다 교포청소년들이 모국어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교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1981년10월10일(토) 오후6시30분
장 소: 한 인 회 관
신청마감: 10월5일

〈우리말 잘하기대회〉
자 격: 만12세 미만
제 목: 어머니, 한국말, 우리집, 한국
제한시간: 3분~5분까지

〈웅변대회〉
자 격: 12세이상 중, 고교생
내 용: 2세교포들의 모국어교육의 중요성
제한시간: 7분
시 상: 장및 부상
각 최우수상, 1, 2, 3등, 장려상, 참가상
연 락 처: 이인용(789-7352, 222-3076)

공동주최: 한·카 청소년문화협회, 라이온즈클럽
후 원: 한인회, 토론토한국교육원, 노스·욕한글학교, 씨알학교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정직
성실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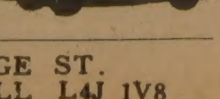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 美, 汎세계적 反蘇공세

## 化學무기 使用규탄 「黃色의 비」 유엔에 飛火

【유엔15日AP聯合=聯合】 미국은 14일 세계도처에서 화학병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가릴목적으로 구성된 유엔의 4人조사단에게 라오스 캄보디아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공급한 이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줄 중대하고 새로운정보를 제공했다.

진·J·커크패트릭 駐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을 방문, 생화학무기전문가들로구성된 유엔의 4人조사단은우선 인도차이나 난민촌과 아프가니스탄국경지역에 직접 나가 목격자들과 생화하무기공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해야할것이라고 촉구하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발트하임 총장과 15분동안의 면담을가진 커크패트릭대사는 미국이 수집작성한 보문서는 4인의 유엔전문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뿐만아니라 작년말 화학병기조사단을 구성한바있는 유엔총회의 공식문서로서 회람되도록 해줄것등을 요청했다.

한편 루돌프·스타주하르 유엔대변인은 유엔조사단은 조사임무를 곧완료, 가까운 장래에 그결과를 발트하임사무총장에게 보고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커크패트릭대사는 유엔에 제출된 정보문서에는 타이, 캄보디아접경지역에서 채취한나무잎및나무줄기등샘플이 강력한 3가지형태의 미코톡신 즉 니발레온, 디옥시니발레온, T2톡신등 트리코테신그룹의 독극성분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함유하고있다고 밝혔다.

스타주하르 대변인은 유엔 4人조사단이 이집트, 케냐, 페루및 필리핀출신의 의학조사전문가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워싱턴15日=聯合】 미국은 헤이그장관이 소련의 생화학무기사용을 비난한지 하루뒤인 14일, 월터·스토셀국무차관을 통해 『캄보디아를 비롯한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코톡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독성을 지닌 옐로·레인(黃色雨)이 화학무기로 사용되고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反소캠페인을 극적으로 고조시키고있다.

스토셀국무차관은 이날 뉴스브리핑을 갖고 옐로·레인을사용하고 있는 장본인이 베트남軍인지 또는 소련軍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진않았으나 소련이 본국에서 제조한것을 베트남에 공급하고있음을강력히 시사했다.

스토셀차관은 이 옐로·레인은 저공비행하는 항공기로부터 액체 또는 미세한분말로 지상에 살포되며 옐로·레인이 피부에 닿거나 체내에 흡입될 경우 체역, 약화, 경련현상과 아울러 코, 목, 눈, 장, 위장등으로부터 파다출혈이 일어나 수분만에 목숨을 잃게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인들도 한투 1백명이상이 죽어가고있으며 수천명이 현기증 구토등으로 고생하고있다고 주장했다.

# "中東분쟁 世界평화威脅"

## 발트하임總長 유엔年例보고서

【유엔本部15日路=聯合】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中東분쟁이 전체국제사회의 두통거리이며 세계평화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발트하임총장은 15일 개막된 제3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東西관계와 軍縮, 그리고 미해결로 남아있는 수많은지역분쟁에 광범히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분쟁해소를위해 蘇聯최고회의 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가 제안한 유엔安保理 정상회담안을 西方측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발트하임 총장은 美蘇간의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이 가능한한 조속히 재개되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하고 9월하순 유엔본부에서 이루어질 헤이그미국무장관과 그로미코 소련외상간의 회담이 『건설적 협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東西대화의 유지가 현재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고있는 국가들간의 의심과 적대감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것』이라고 말하고 『의심과 적대의 악순환을 가급적 조속히해소하도록 노력하는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南阿共규탄 決議案을 표결하는 유엔特總

南阿共규탄결의안을 표결하고있는 15일의 유엔특별총회광경。유엔총회는 南阿共규탄및 포괄적인 對南阿共제재를 골자로한 결의안을 1백17對0, 기권25의 압도적다수결로 통과시켰다。【유엔본부14日AP電送=聯合】

# 南阿共규탄 決議案 통과

## 나미비아問題 유엔特總서

【유엔본부14日UPI AP=聯合】 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문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는 14일 나미비아 독립을 거부하고있는 남아공을 규탄하고 포괄적인 對남아공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백17대 0 기권25의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25개국중에는 2주전 남아공의 앙골라 무력침공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남아공규탄결의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과 기권입장을 취했던 영국·프랑스·캐나다등 서방5대강국이 포함돼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협상을 통한 나미비아 독립을 지지키로 방향전환을 한 명백한 신호이다.

# 蘇, 소비物價 대폭引上단행

## 79年이래最大 휘발유 1百%올려

【모스크바14日UPI=聯合】 소련은 15일0시(현지시간)를 기해 휘발유값을 1백%인상하고 기타酒類·보석류등 일반상품價를 최저17%~35%까지올리는 지난76년이래 최대규모의 소비자物價인상을 단행한다고 소련국가물가위원회의 니콜라이·글루시코프위원장이 14일 발표했다.

글루시코프 위원장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국영TV방송 연설에서 『생산조건의 변화, 원자재구입비의 증가, 자원과 기타 생산품의 소비조절등실질적인 필요성때문』에 이같이 소비자물가를 인상시키기로했으며 특히 보드카·샴페인등 주류는 『소비감소를 유도하기위해』 그 質과 용량에 따라 가격을 17%~27%쯤으로 인상하고 사치성 金·銀·보석·모피·高價가구등은25%~30%까지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련의 휘발유가격은 1ℓ당20코페크(갤런당 1.08달러)에서 40코페크(갤런당 2.20달러)로 올랐다.

한편 이같은 발표가 있기 직전인 14일 모스크바중심가를 비롯 소련주요도시에 물가대폭 인상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일반상점·보석상등 인상대상품판매소앞에는 상점에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로 일대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특히 주유소앞에는 급유를 기다리는 차량이 1.5km이상의 긴행렬을 이루기도했다.

# 軍事보다 經濟우선

## 論爭거듭 小幅에 그쳐 對外입장 弱化우려도

### 美國防예산 1百30億弗삭감의 背景

인사이드

【워싱턴14日=曺淳泰특파원】 지난8월중순부터 美행정부내에서는 美국방비삭감문제를둘러싸고 논쟁이 서서히 확대되어왔다. 이 논쟁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예민하게 반영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국제증권시장에서 싹텄다. 레이건행정부는 82회계연도의 예산적자를 4백25억달러정도로 예상했으나 美의회와 경제계는 예산을 더 삭감하지 않으면 그적자는 7백억~7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에는 즉각 이러한 美경제불안이 투영되어 증권시장은 레이건의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침체에 빠졌다.

레이건행정부가 예산안을 더 삭감하지않는한 레이건이 대통령선거전에서 84년도에 균형예산을 이룩하겠다던 공약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것이 되고 인플레이션 억제도 어려워져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져드는 전망이 다가섰다.

레이건 대통령은 앞으로 3년동안에 미국경제는 年평균4·3%성장을 이룩, 70년대의 평균성장보다 40%나 높은 경제발전을 기록할것이라는 기대가 허물어진 경제기상도에 직면했다.

여기서 나온 처방의 하나가 美국방예산을 83, 84두회계연도에 3백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토크맨 예산관리국장과 베이커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안을 들고 나왔다.

미즈백악관고문은 지난 8월중순 국방예산은 삭감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 미즈의 발언이 있은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않아 텍사스해안서 여름휴가를 마친 베이커비서실장은 레이건이 2백억~3백억달러에이르는 국방예산을 줄일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즈와 베이커간에 처음으로 나타난 不協和音으로 미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미즈의 주장은 곧 고개를 숙이고 백악관 보좌관들은 레이건예산이 원초부터 사회보장예산을 한계선까지 깎고 있어 더이상 여기에 손대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걸어 예산관리국과 백악관보좌관들은 국방비삭감으로 방향을 돌렸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이 이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국방과 관련된 외교면에서 와인버거와 의견이 상당히 대립돼온 헤이그국무장관이 와인버거편을들었다.

국방비삭감을 둘러싼 일대논쟁은 대폭 깎아야 한다는 스토크맨, 베이커와 이에 맞서는 와인버거, 헤이그의 싸움으로 진전됐다.

와인버거와 헤이그는 3백억달러 국방비삭감은 美軍방위태세를 해이하게만들고 소련뿐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및 일본등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비의 대폭삭감은 소련과의 전략적 힘의 대결 또는 다가올 SALTⅡ(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정) 협상에서 미국의 약화를뜻하며 나토와 일본등 우방에대해서는 방위비를 더 증강토록 촉구하는 미국의 설득노력이 와해된다는주장을 와인버거와 헤이그는 내세웠다.

지난9일 백악관에서 레이건주재아래 이문제를놓고 각료회의가 열렸으며 와인버거는 고전한는것처럼 보였다.

이자리에서 잠시 사진촬영을 위해 접근한 기자들로부터 『고독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을 받고 와인버거는 『나는 결코 장미화원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백악관회의에서 3백억달러삭감에서 최대로 양보할수 있는 線은 어디까지냐는 레이건의 질문에 스토크맨은2백60억달러라고 답변했다. 또 최대로 양보해서 깎을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냐는 역시 레이건의 질문에 와인버거는 90억달러를 넘을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레이건은 와인버거와 스토크맨에게 다음날 국방성에서 회합하여 타협을 보도록 지시했으나 끝내 평행선을 그었다.

레이건은 그다음날인 지난 11일 와인버거와 스토크맨을 백악관에 불러 82회계연도에도 국방비를 20억달러 삭감하도록 스토크맨에게 말해 다소 위안을 주고 와인버거에게는 앞으로 3년동안에 1백30억달러 삭감을 말해 스토크맨이 주장하는 삭감액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를 안겨주었다.

와인버거나 스토크맨은 과거의 주장은 갖추고 레이건의 결정이 군사력강화와 경제간에 균형잡힌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비삭감논쟁서 와인버거는 분명히 승리했으나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겸손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82회계연도에 20억달러, 83회계연도에 50억달러, 84회계연도에 60억달러 삭감으로서는 총6천5백20억달러 규모의 82, 83, 84회계연도국방비에 별지장이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1백30억달러 삭감 아래서는 어떤 무기구입체제의 취소나 대폭감소는 없어도되며 다만 무기구입의 시한을 다소 뒤로 미루고 몇몇 함정이나 항공기의 『회연』을 앞당기면 된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국방비삭감을 소규모로 한대신 84년도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아마도 사회보장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레이건행정부는 내주초에 美국방예산의 삭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은 82회계연도 美국방예산에서 90억~1백40억달러가 삭감돼야 할것이라고 지난13일 말했다고 한다.

1백30억달러국방비삭감에 의회와 월·스트리트는 84년도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상원예산위원회위원장인 共和黨의 도메니치의원은 상원예산위의 대다수와 의회의대다수의원이 더이상의 국방비가 삭감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한 TV회견에서 말했다.

이런 의회여론이 비등하면 제2의 국방비삭감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

## 중거리 核미사일 配置싸고

# 美·蘇서로"協商용의"

# 22일 外相會談 앞서

## 상대편 「先감축」 요구

【워싱턴15日AP聯合=特約】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만약 소련이 서구를 겨냥해서 배치한 중거리미사일을 철거한다면 미국도 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를 자제할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소련이 취하는 태도여하에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협의하에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 감축협상의 공식일정을 정하기위해 오는22일과 28일 뉴욕에서 그로미코 소련외상과 만날예정으로 있다. 이협상은 금년말께 시작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스크바15日AP聯合=特約】 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소련이 미국과 건설적인 군축협상용의가 있음을 15일재확인했다.

오는22일과 28일있을 美蘇외상회담을 겨냥한것으로 보이는 프라우다紙기사는 소련의 對美군축협상용의를 재확인 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이 소련과 같은정도의 군축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西베를린15日路=聯合】 소련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유럽에 미제미사일을 더이상 배치하지않을경우 소련서부영토에배치된 중거리미사일의 숫자를 줄일수 있다고 소련의 노보스티통신이15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또 소련은한상동서 협상에서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의 제한뿐만아니라감축,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감축문제를 토의할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유럽에 중거리核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기존미사일을 대체하는것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었다.

노보스티통신은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제안에 언급, 이는 소련內에서 이해되고있는 것처럼 동서양진영이 이미유럽에 배치된 중거리미사일의 규모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을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축문제가 의제로 상정된 금년 유엔총회에서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과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가 대면할 예정이고 서방지도자들이 미제미사일의 서구배치를 지지하는 근거가 소련제 SS20미사일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것임을 감안할때 동서문제에 대한 소련지도층의 견해를 반영하는 노보스티통신의 이날 보도는 크게 주목을 끌고있다.

# 佛、中性子彈개발決定

【파리14日AP=聯合】 피에르·모르와 프랑스 수상은 14일 미국이 중성자탄생산을 결정하고 소련이 그 생산능력이 있음을 발표한 이상 프랑스 역시 중성자탄개발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르와수상은 이날 고위국방연구소 개설식 연설에서 이 중성자탄은 『프랑스의 지상전력을 증강시킬수있는 전술무기』라고 지적하면서 그와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80년6월 중성자탄두를 개발, 실험을 마쳤으나 정식 전술무기로 채택할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와수상은 미테랑대통령의 프랑스社會黨정부의 국방정책을 설명하면서 프랑스는 또 중립주의를 바라지 않을뿐만아니라 무기의 종류선택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려한다고 말했다.

# 노르웨이總選 右派聯立승리

【오슬로15日AP路=聯合】 보수당을 주축으로한 노르웨이 우파연립은 15일아침 96%의 개표가 완료된 총선에서 1백55개의석중 79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그로·하를렘·브룬틀란트 여수상이 이끄는 노동당주도 좌파연립정권의 8년통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컴퓨터집계에 따르면 보수당53석, 기민당15석, 중앙당11석등으로 우파연립세력이 79석을 차지한 반면 집권당인 노동당은 현재보다 9석이 줄어든 67석.

# 英、대대적改閣

【런던14日路=聯合】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14일 보수당정부 출범 28개월만에 처음으로 現정부의 강력한 인플레퇴치 및 긴축통화정책을 비판해온 6명의 각내외장차관들을 해임하고 2명의 각료를 새로 기용하는 한편 8명의 각료를 전보시키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대처수상은 이와동시에 영국의 경제불황과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온 도니·크로프트경을 보수당의장직에서 해임하고 이자리를 세실·파킨슨신임지불총감에게 맡겼다.

## 메아리

### 강강술래의 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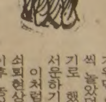
강강술래는 전남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민속놀이 이다.

한가위나 대보름날 휘영청 밝은달빛아래서 마을의 처녀와 아낙네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근원을 그리면서 앞소리에 후렴을 함께 맞추어 부르며 달이 이슥할때까지 춤을 추고 즐긴다.

긴 머리채에 빨간 갑사댕기를 드린 머리꼬리를 나풀대는 처녀나 비녀로 맵시있게 쪽지고는 이 부시도록 희며 예쁜 외씨버선의 발놀림이 사뿐한 아낙네들의 원무는 우리 민속 놀이 가운데서도 가장 흥겹고 아름답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때 이고장 수군통제사로 재직하면서 왜적들에게 우리의 군량과 병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해안 일대의 산봉우리를 짚으로 덮어 노적처럼꾸미고 부녀자들을 남장시켜서 원무를 추게 했더니 왜군이 놀라 달아났던데서 비롯된것이라고 전한다.

이와같은 전설은 이 고장 사람들이 임진왜란때 충무공으로 부터 입은 은혜와 더불어 저버리지 않기위하여 의도적으로 후세에 꾸며낸 사연인가 싶다. 역시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민속으로서 농경사회가 지나는 통과의례의 한가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듯 하며 1965년 이 놀이를 정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했던 까닭도 그와같은 오랜 연유를 십분 고려한데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전남일대에서 그토록 흥겹고 아름다운 멋이 깃든 놀이가 갑자기 시들해지고 심지어는 사라져 가려한다는 우려마저 있다는 소식은 놀랍기만 하다.

더구나 올해는 태풍「애그니스」의 상처로 한가위면 으레 마을에서 한바탕씩 놀았던 강강술래도 그만두기로 했었다니 소문만이라도 서운하기가 이를데 없다.

이처럼 갑작스런 강강술래의 쇠퇴현상이 나타난것은 70년대이후 농어촌인구의 과소현상이 진행되고부터의 일이며 이에 더하여 지난날에는 그고장 여자 중·고교에서 으레 지도하는것으로 되어 있었던일마저 까닭없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농·어촌의 과소현상때문에 전승할 사람이 줄어든것은 시대의 변천으로 당장 묘방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사회의 여학교에서만이라도 강강술래의 전승에 좀더 뜻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37년만의 쌍동이 再相逢

37년여만에 재상봉한 英國의 에릭·부코크, 토미·부코크 쌍동이 형제(38)가 벅찬 재회의기쁨을 나누고있다。생후4개월만에 헤어져 그간 서로 죽은 줄만 알고 지내오다 다시 만난것。【셔필드(英)14日UPI=聯合】

◇猛烈 선거운동원

아더·엘런이라는 한 美國人이 14일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의 왕관위에(화살표) 올라가 뉴욕시장 선거운동을위한 전단을 뿌린뒤 앉아있는것을 한 경찰관이 잡으려하고있다。【뉴욕14日AP電送=聯合】

## 오늘의 역사 <16일>

▲韓國民主黨 결성 (1945)
▲NATO이사회美·英·佛대표회의 (1951)
▲政府 부산서 서울로환도 (1953)
▲아르헨티나 陸·海軍무장폭동 (1955)
▲美, 잠수함서 유도탄발사성공 (1958)
▲케네디美대통령, 1958년이래 최초의 지하핵실험 발표 (1961)
▲印度·中共, 서부접경지역서 교전 (1962)
▲美, ABM彈頭지하핵실험실시 (1968)

## 海外토픽

### 孫文유해 그대로

★中共, 시체移動說부인

중공당국은 최근 南京에묻혀있는 중국혁명의 아버지孫文의 시체가 지하터널을 통해 몰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항간의 소문을 강력히 부인하고 그의 유해는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공식해명.

관영 신화사통신은 지난 1929년 孫文의 유해를 北京에서 南京으로 옮길때 운송책임을 맡았고 지금은 묘소관리인으로 있는 팬·리양(77)노인의 말을 인용, 당초 손문의 유해를 수정유리와 구리관을 써서 일반국민들이 생전의 그의 모습을 볼수있도록 개방하려고 했으나 시체부패로 인한 보존상의 어려움때문에 관을 완전 밀폐하여 지하 5m의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보도。【北京=AP】


# 심령부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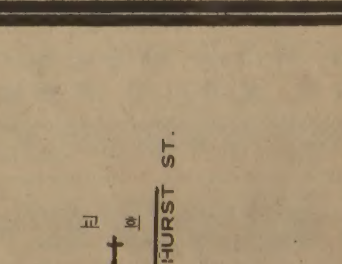
##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있읍니까? 와 보시라!

### 강 사 : 최 헌 우 목사

최헌우 목사님은 L.A.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척한지 5년만에 급성장한 교회로 부흥시킨 능력의 종, 신유의 종으로 현재 400명 교인이 모이는 (72만달러짜리교회 구입)교회를 이끄는 성공적인 목회자이며 부흥사이십니다. 많이 오셔서 최목사님의 능력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영육간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력소개 :
- 총회 신학대학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 10월1일(목)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일(금) 오후7시30분( 〃 )
3일(토) 〃 ( 〃 )
4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전화연락 :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중앙장로교회

# 高鎭源 4位차지

## 世界아마레슬링, 한국 8位그쳐·

【스코피에(유고)14日聯=聯】 한국의 高鎭源은 14일 유고의 스코피에에서 벌어진 세계자유형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 74kg급(웰터급)경기에서 4위를 차지했다.

高鎭源은 이날 4회전에서 루바니수에 폴승을 거두었으나 8, 4위가 결정된 5회전에서 78, 79년도 세계선수권자인 美國의 리·켐프에 5-1로 져 4위에 머물렀다.

韓國은 14일 폐막된 세계자유형 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총9점을 얻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韓國은 이번대회에서 주니어플라이급의 孫甲道가 2위, 웰터급의 高鎭源이 4위, 라이트급의 柳寅卓이 5위를 차지했다.

蘇聯은 4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33점을 얻은 불가리아가, 3위는 28점의 美國이 차지했다.

## 브라질 B組1位에 日도 決勝토너진출 메盃축구

【쿠알라룸푸르14日聯=聯】 브라질은 1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속개된 제25회 메르데카배국제축구대회 B조예선 경기에서 태국을 5-1로 대파하고 4전전승의 기록으로 B조수위를 차지했다. 한편 A조의 日本은 인도네시아를 2-0으로 완파하고 4승1패로 역시 결승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됐다.

4개팀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 진출을 놓고 A조에서는 뉴질랜드와 印度가, B조에서는 이라크와 한국이 각각 축전을 벌이고있다.

## 한국남자팀 2連勝 리비아 國際 탁구

리비아9월혁명기념 국제친선탁구대회에 출전중인 韓國남자팀은 13일 벵가지중앙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첫날 경기에서 튀니지를 5-2로 제압한데 이어 모로코도 5-0으로 완파, 2연승을 기록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 釜山·慶南공동1位 황금사자기野球

【釜山=聯】 釜山高는 14일 九德구장에서 끝난 제35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釜山시예선 최종일경기에서 7회말 9번 黃鍾萬의 결승타등으로 라이벌 慶南高를 4-2로 누르고 5승2무1패로 慶南高(6승2패)와 공동1위를 차지했다.

## 大邱商, 聖光꺾고 大邱市대표 確定 黃金獅子旗야구

【大邱=聯】 大邱商은 14일 大邱시민운동장서 열린 제35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大邱예선전 2일째 경기에서 金動基 李拓基의 계투로 聖光高의 타봉을 산발4안타로 막고 2회말 타자일순하면서 1번 李政勳의 우중월 3루타등 집중6안타로 대거 5점을 빼내 聖光高를 7대0으로 압봉, 2승으로 남은 경기와관계없이 大邱시대표로 확정됐다.

## 한국일보 詩壇

### 가을 三章

崔 基 瀨

(一)
눈 감고 사는 양이
뜬눈 보다 훨씬 곱다
따라온 달 한덩이
산발에 와 앉은 산새
아내여
이 보다 멈그런
宮闕 어디 있다더냐。

(二)
눈도 귀도 다 먼 세월
도로 찾은 草家三間
깊은 잠 가을 山菊
깨고 보니 흰 서릿새
佛心도
맨드라민양
타다 남은 아내여。

(三)
내 죽고 밝힐 燈을
觀音 앞에 걸어 놨네
가난도 寶石이면
合掌 아니 무거울까
塔 돌며
삼백 예순 날
九天 나를 기러기여。

## 風速計

### 黃眞伊碑 臨津閣건립 坡州郡, 「不許」로진통

○…지난 해부터 계획된 黃眞伊 歌碑가 건립 장소 문제로 1년이 지나도록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黃眞伊 歌碑는 全國國語國文學詩歌碑建立同好會(대표 金東旭)회원 40여명이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 성금을 마련, 지난 2월부터 黃眞伊의 탄생지인 長湍이 내다보이는 臨津閣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국국어국문학시가비건립동호회는 각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中堅국문학자들이 우리나라 옛선비들의 정신을 높이자는 뜻으로 緣故地에 詩碑, 歌碑등을 세우기위해 모인 조직으로 지금까지 宋純 歌碑, 盧溪 歌碑, 許蘭雪軒 詩碑등을 건립해 왔다. 黃眞伊 歌碑는 同會의 네번째 사업으로 『黃眞伊가 태어난 長湍이 보이고 그녀의 생활의 본거지였던 開城을 지호지간에 두고 있는 임진각에 세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예술 문화 애호정신을 과시하기 위해』 계획했다.

○…그러나 임진각을 관리하고있는 坡州郡에서는 『임진각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기리기위해 세워진 곳이고, 조국을 수호하기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임진강을 지키려고 목숨을 던진 임진지구 戰績碑가 있는 곳이어서 歌碑의 설립 취지는 이해하나 임진각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선정하면 건립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임진각 내 건립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同會회원들은 임진각내에 건립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버리지 않고 坡州郡등 관계처와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黃眞伊 가비는 임진각설립취지대로 평화 통일의 뜻을 담는 방향을 취할것이며, 임진각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민족의 긍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임진각 내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同會 대표 金東旭교수(延大)는 『坡州郡측이 허락하지 않는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나, 평화통일과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임진각 구내에 기어이 세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혹시 黃眞伊가 妓生이었다는 점이 지적되더라도, 그녀는 모든 학자들 사이에서 위대한 時調詩人으로 존중되고, 한국여성사에서 숭앙될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산 祖上으로 기려지는 인물이라는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맺는다.

# 金賞11편등 풍성한 수확

## 3회學生科學책읽기 入賞者발표

### 장학금 15~2만원씩 支給 指導교사·단체·功勞賞도

### 10月8日 全經聯회관서施賞式

제3회 「전국학생과학책읽기운동」(주최=한국일보社·科學技術處, 주관=소년한국일보·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 후원=문교부·문화공보부·한국방송공사·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독후감 응모 수상작품이 결정됐다. 이번 과학책읽기운동에 호응한 총참가학생은 98만4천9백4명. 이들이낸 작품중 내용이 좋은 5만8천3백53편이 가려지고 다시 이가운데서 금상 11편(장학금 ①초등부 각 10만원 ②중등부 각 13만원 ③고등부 각 15만원), 은상 23편(〃 ①5〃 ②7〃 ③9〃), 동상 70편(〃 ①2〃 ②3〃 ③4〃), 장려상 1천8백편(부상 4천원상당의 과학도서), 가작상 1천2백편(〃 3천원상당의 〃)이 뽑혔다. 또 과학책 읽기운동의 호응도에따라 지도교사상(11명)과 단체상(3개교·당) 공로상(11명)이 결정됐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지방의 동상과 장려상은 별도 우송)은 오는 10월8일 상오10시 「바다의 노래」 가사 응모당선자와 함께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갖는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 금·은상 수상학생 34명과 지도교사상 수상교사 11명등 45명을 특별초청, 10월7일부터 1박2일 여정의 서울과학단지및 산업체에 대한 견학의 길을 마련한다.

### 수상자 명단

◇금상=▲고명경(서울 잠원국2년)▲제유미(부산 남천국2년)▲송혜영(서울 창동국4년)▲정순지(경남 동광국3년)▲김광호(경기 성남일국6년)▲임호준(대구 아양국6년)▲이재성(경기 안성중3년)▲홍연철(강원 춘천중3년)▲김선태(충남 대전서중1년)▲원정윤(서울 서울여고2년)▲경기호(경기 수성고2년)。

◇은상=▲김현지(제주 남국1년)▲김정숙(경북 점촌국2년)▲이동욱(부산 부곡국1년)▲최태린(충남 서광국2년)▲허윤(서울 논현국2년)▲성주은(경남 합포국3년)▲오화순(경북 중앙국4년)▲정 철(경북 이서국3년)▲김종훈(경남 읍덕국3년)▲박수경(서울 리라국3년)▲김형준(경남 밀성국6년)▲양경윤(전남 담주국6년)▲심은이(경북 송원국6년)▲김광모(전북 신흥국6년)▲박소흥(경기 단대국5년)▲서덕주(경남 마산동중1년)▲윤만근(전남 도암중3년)▲안현규(충남 공주여중3년)▲고기주(서울 선일여3년)▲신옥주(부산 동래여1년)▲전나미(경남 김해여고1년)▲유태규(경기 부천공1년)▲조대숙(경기 한광여고1년)

◇단체상=▲논현국교▲울릉중태하분교▲진명여고。

◇지도교사상=▲김동수(서울논현국교)▲홍순태(서울일신국교)▲이상명(경남합포국교)▲김원두(서울경북국교)▲고섬희(전남담주국교)▲산운기(경북선천국교)▲박완기(서울중화중)▲강극수(경북울릉중태하분교)▲최명수(강원봉의여중)▲김경휘(서울진명여고)▲이규목(경북경북사대부고)

### 심사소감 —洪 文 和—

◇洪 文 和박사

## 학생들 探究心높아 흐뭇 진실·논리성등 기준選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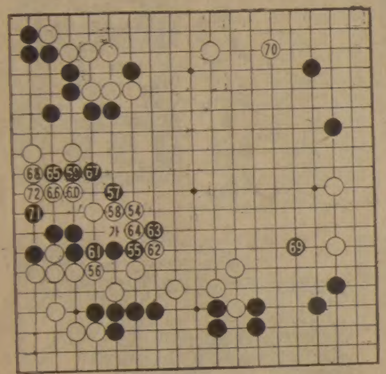
심사위원장〈약학 박사·서울대학교명예교수〉

전국에서 98만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과학 읽기운동에 참가하여 독후감을 썼다. 여기에서 쓰여진 작품은 학교별로 심사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과학교별 예선을통과한 5만8천3백53편이 과학기술 진흥재단과 소년한국일보에 응모되었다. 이 많은 작품을 읽으면서 국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탐구심을 엿볼수있어서 흐뭇했다. 과학문고의 독후감은 일반 독후감과는 다른 것이어서 진실성·순수성·논리성·표현력을 기준해서 입상작을 뽑았다. 대다수의 작품들이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으나 책의 내용을 요약한 데에 그친 작품도 상당수였다.

그 중에는 본인의 글이 아닌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작품들은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작품의 끝맺음에서 『나는 자라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하는식의 교훈적인 사족을 단것이 많았는데 반드시 이런 내용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작품이 많았다는 것도 곁들여 둔다.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4譜 54~72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徐奉洙
黑(6段)姜哲民

좌변에 침입한 黑일단은 과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白의 그물속에 꼭 갇혀버리면 바둑은 그대로 끝날것만 같다. 하지만 白도 엄정한데가 있다. 우선 白54로 뛰어 전체를 포위하려는 자세. 姜6단은 『이거 암만해도 안되겠는걸』하고 불쑥된다. 그리고 다시금 長考12분, 그래 黑55로 밀고나갔다. 그런데 이 수는 이상하기보다 공연한 저항이었던 모양이다. 여기서는 일단 「간」의 쌍립으로 들여다보아야 했다는 국후의 의견들이었다.

즉, 참고도처럼 黑1이면 白2는 절대. 이때 黑3으로 白4를 종용하고 5에 단수를 치면 黑은 간단히 연할수 있었다. 수순중 白2를 4에 모하면 黑「A」로서 아무일없고 또 白4를 「B」에 막으면 黑「C」, 白5때 黑4로 탈출하여 오히려 白이 무리한결과를 초래한다.

左邊黑大馬함몰

姜6단이 편한 길을 버리고 굳이 어렵게 두어버린데는 나름대로 일전불사의 결의를 가진때문이겠지만 당장 白56의 호착을 당하자 궁지에 몰린모습이다. 이리하여 黑57을 선수하고 59에 붙였으나 白60으로 되자 黑은 마침내 살길을 잃고말았다. 姜6단은 손해수인줄 알면서도 61에 잇고 다시 黑67로 후회하여 단수상전을 피했다. 그러나 白72로 되고보니 『진자로 망했는걸』하는 독백이 흘러나왔다. 【一凡】

## 禁酒·禁煙세미나

국제금주협회(IOGT)한국지역본부 주최 금주·금연세미나가 19일하오3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열린다.

## 16회 全國 技能 올림픽大會

### 23日부터 30日까지 忠南大田에서

제16회 전국기능올림픽대회(회장·洪性澈)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忠南大田에서 열린다. 이번대회는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4연패의 영광을 안고 돌아온후 갖는 첫 대회로서 39개직종에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등 전국 11개시·도청소년기능대표 794명의 선수가 참가,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된다. 한편, 이번대회 참가선수와 임원은 경기가 끝나는대로 산업시찰과 관광, 기능청소년의 밤등 다채로운 행사를통해 격의없는 대화와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 한국, 中共과첫對戰 핸드볼 亞洲예선

【東京14日聯=聯】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B조예선경기가 16일 韓國과 中共과의 대전을 시발로 3일간 東京에서 벌어진다고 日本핸드볼협회가 14일 발표했다.

3개팀이 출전하는 B조예선대회는 17일 日本·中共전, 18일 韓國·日本전으로 끝을 맺는데 이 B조예선전의 우승팀은 내년2월23일 西獨에서 개최되는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된다.

日本핸드볼협회는 당초 국제핸드볼연맹(IHF)회원국인 臺灣이 中國臺北의 이름으로 이번 아시아B조예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유럽예선은 12개국을 포함, 도합16개국팀이 참가하는데 아시아A조예선은 쿠웨이트·이라크·팔레스타인이 경기를 벌이게된다.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⑱

## 反託운동

### 民族陣營 일제히궐기 撤回투쟁전개

### 熱血青年지휘 左翼의 贊託운동 박멸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反託운동, 美·蘇共同委에 얽힌사연, 그리고 民主議院시절을 전후하여 목숨을 걸고 左翼과 투쟁했던 얘기를 하지않을수없다.

내가 李承晩박사 모시고 정치의 중앙무대를 밟은지 얼마 되지않은 敦岩莊시절에 처시련이 닥쳐왔다. 즉 信託統治案이었다. 45년 12월26일 한국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會同한 美·英·蘇 3국外相은 『한국민은 自治능력이 없다』는 가정아래 5개년 信託통치를 결정했다. 해방이되고 불과수개월만에 밀어닥친 이뜻밖의 결정에 민족진영의 右翼은 진검을 했고 左翼도 깜짝 놀랐었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정치, 사회단체는 일제히 궐기해 일어나 반대운동을 벌였고 左翼도 뜻을 같이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단합된 민족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해 12월31일은 이러한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난 날이었다. 당시 서울운동장에는 30여만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左右각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反託市民大會가 열려 전민족의 激怒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그후 左翼은 이제안이 소련에의해 제기된것을 뒤늦게 알고 어색한 행동을 취하다 北의 密命을 받고는 하루아침에 贊託으로 突變했다. 左翼은 스스로 소련의 走狗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후 얼마동안은 左右의 贊·反託이 엇갈리는가운데 서로 격돌하는 양상을 빚기시작했는데 理論투쟁만을 전개했던 左·右진영이 주먹과 몽둥이가 오가는 暴力대항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다행히 나는 언젠가는 左右격돌이 있을것을 예상, 右翼청년들을 한군데로 묶어두고있었다. 獨立促成中央協議會 결성식이 左翼청년들에의해 난장판이 된 사실이 나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敦岩莊으로 이사하자마자 右翼청년들을 모으기시작, 8백여명의 熱血청년들을 내 지휘하에두는데 성공했다. 이때 敦岩莊에 드나들던 학생들은 金學聯의 李哲承, 朴容萬, 平安道출신의 文鳳濟, 金聖柱, 咸鏡道의 韓哲民, 潘星悅, 그리고 金斗漢, 郭亨鉉, 李瀚淳, 孫壇등 猛將들이었다.

46년1월3일 우리는 신탁통치를 결사반대하기위해 서울운동장에서 反託대회를 갖자 左翼도 같은시각에 南山에서 贊託대회를 열었는데 대회가 끝난뒤 街頭示威를 벌였는데 우리의 코스가 鍾路-軍政廳(중앙청)이고, 左翼은 南大門-軍政廳(현중앙청)이었다.

따라서 양대진영이 동시에 대회를 여는날은 꼭 한바탕 流血사태가 벌어졌으며 내가 모은 청년들은 잘도 左翼진영을 유린했다. 이중 金斗漢조직이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였다. 이때를 回想하면 지금도 毛骨이 송연해지는 기억이있다. 左翼이 平壤의 지령을 받고 贊託으로돌아선직후 첫 대회를 南山에서 여는날 나는 공산당을 한꺼번에 날려보낼 계획을 세웠다. 金斗漢, 韓哲民등을 시켜 南山大會場에 몰래 다이너마이트를 묻고 대회가 중반에 다다랐을 즈음 폭파시킬 생각이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것은 美軍에게 술을 사주고 얼마든지 구할수가있었다. 이틀동안의 야간작업끝에 대회장밑에 다이너마이트를 묻고 전선을 연결시켜 언제라도 폭파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회당일 金斗漢의 부하들은 南山숲속에 숨어 폭파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急報가 날아왔다. 左翼의 贊託大會에 美軍政廳간부 5~6명이 참석한것이었다. 나는 당황하여 급히 金을 불러 폭파중지를 명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됐으면 폭파는 단행되었고 軍政廳간부들도 共產黨패와함께 날아갔을것이지만 만약그렇게 됐다면 李박사를 위시한 右翼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을것이다. 그런데 美軍政廳간부들이 왜 좌익들의 대회에 참석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

◇45년 歲暮에 날아든 信託統治案은 建國의 부푼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어서 온국민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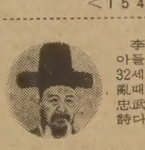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右派청년들은 左翼을 때려잡기위해 기세를 올려 南大門밖의 공산당본부는 물론, 대회장까지 치고들어가 쌈박 수십명의 피해자를 내기도했다. 共產黨 격멸에 돌격대장을 맡았던 金斗漢이 한번은 길목을 지키고있다 좌익에 폭빠진 呂運亨을 奬忠壇공원부근에서 죽도록 두들겨 팼던 일도 있는데 이때문에 金은 지명수배되어 피해다니기도했다.

당시의 정치지도자들은 한결같이 反託에 뜻을 같이했는데 인내로써 政局을 관망하던 李박사는 침묵을 깨고 반대결의를 표명했고 金九선생도 전민족의 투쟁을 촉구했다.

이에당황한 하지중장은 李박사를 찾아와 협조를 당부하기까지했지만 李박사는 당시의 美國정치지도자등이 전혀 정치를 모르고 역사를 내다보는 눈이 어둡다고 하지를 면박했었다. 어떻든 信託案은 草創期의 우리政局을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었고 이때부터 建國까지는 힘겨운 투쟁과 노력으로 점철케되었다.

## 文豪의 名言

### 李 舜 臣 <1545~1597>



李朝宣祖때의名將。貞의 아들, 漢城출신, 시호忠武。32세때 正式 武科급제, 壬亂때 三道水軍統制使。李忠武公全書 14권 8책과 漢詩다수。

### 妄動을 삼가라, 山과같이 진중하라

妄動을 삼가라. 진중하기를 山과같이 하라.
〈玉浦海戰에 앞서 諸將에게〉

× × ×

한국歷史에서 강토수호를위한 大小무수의 忠魂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뛰어난 殉國의 先烈로 먼저 忠武公 李舜臣 提督을 들어야할 것이다.

公은 50평생을 오직 國事에 바쳤고 壬亂때는 勝利의 戰勳을 千秋에 남겼거니와 그의 고매한 인격은 萬人의 儀範이되어 그대로 民族의 師表가됐다.

公의官職에는 在世중 그다지 빛난것이 아니었고 그出世의 경로는 오히려 매우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名利와 權勢를 초월한 그는 어떤 職位에있건 오직 至誠으로 봉공할 따름이었다. 실로 公의一生은 오직 私事를 버린채 겨레를위한 일편단심 그것이었다.

公은 또한 正義感이 강해 조금이라도 不義의 일에 부닺치면 身命을 걸어 굽힘이없었다.

무릇 마음이 공명정대하여 義理가 굳은사람은 누구나 그言行이 剛毅한 법이나 그것을 忠武公에서 가장 잘 볼수있다.

公은 언제나 忠義에 불타는 殉國의至誠一念으로 生死를 초월했다. 그것은 최후의 勝戰을거둔 悲壯한 戰歿로서 표시됐다.

公이 仁宗元年 乙巳(1545)에 탄생, 成年이된 宣祖시대로 말하면 政局이 자못 험난한때였다.

더우기 燕山朝이래로 士禍를거듭한 나머지 黨派의 政爭이 격렬, 그이면에는 음모와 誣獄이 극심하여 國政이 매우 피폐했었다.

안으로는 暗黑과 恐怖가 가득했고 밖으로는 倭亂이 닥쳐와서 이나라는 一大危機에 처했었다.

만약 이같은 難局을 극복할만한 위인이 없었던들 千秋의 國辱을 면치못했을것이다.

天意는 바야흐로 民族의 難을 면하기위해 그를 이땅에 보냈다하면 지나칠까. 公은 오직 誠實에 살고 忠義에 죽었다.

그 忠義의 정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이없이 찬연하거니와 이후 萬代에 이르기까지 民族魂으로 길이 보존될것이다.

『강산은 어디에나 비참한 몰골이요, 물고기 날새들도 서러워 목멘다.
기우는 이나라의 운명을 누가다시 세우려는가』(詩「無題」)
『바다에 맹세하매 고기와 龍이 감동하고, 산악에 다짐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 모눈종이 위의 生 <202>

趙善作 作 禹慶熙 畵

### 돌개바람불다 ③

나는 윤나미의 주변이 대체로 한 세대전의 낡은 그림을 보는듯한 느낌이었다。병약한 딸을 혼자길러내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의 스타로 성공시키려는 기녀(妓女) 출신의 모정(母情)。어쩌면 낡은 대로 잘 어울리는 한폭의 풍속화일 듯도 싶었는데, 그들이 스폰서가 된 여행길에 따라나선 나는 어쩐지 자꾸만 얼굴이 근질거리는 느낌이었다。

식당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자 분위기는 아연 활기를 돋우었다。식당에서 시작한 화제인 모양인데, 유감독은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윤나미와 나에게 『듣고싶지, 미스 안도 듣고싶지?』하고, 다짐하듯 말하고는 권여사에게 『봐요, 빙모여사。모두 듣고싶다지』하고 말했고, 권여사가 『빙모는 뭐고 여사는 또 뭐야? 이봐요, 감독 선생。이거 보이셔?』하며, 손가락 하나를 그의 눈앞에 들이대자, 유감독은 허리를 거의 구십도 각도로 굽혀 코믹하게 사죄를 하는 등, 한바탕 웃음판부터 벌어졌다。

『미스 윤과 미스 안의 정신위생을 위해서 지독히 외설적인 장면은 생략하겠읍니다。됐읍니까?』

유감독은 자리에앉아 권여사를 향해 이렇게 허두를 떼었다。윤나미는 두려운지 두눈이 동그래가지고 『엄마, 무슨 얘긴데?』하며 권여사에게 매달렸고, 나는 그가 혹시 정통에서의 내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닌가싶어 유장훈감독과 그를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유감독이 꺼낸 이야기는 가십에 불과했다。지금 이름을대면 누구라도 알수있는 톱스타의 병아리적 통변담인데, 좀 상스러운듯 하면서도 능란한 화술을 구사하는 유감독의 재치때문에 현장감이 팽팽하고 살진 에피소드가 되었다。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았다。

유장훈감독이 그의 대표작이며 개봉관에서 사십만에 가까운 엄청난 관객동원의 기록을 수립한 작품의 캐스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는 당시에는 햇병아리 신인에 지나지 않는 R양을 타이틀 롤로 지목하고, 몇차례 만나보면서 눈여겨 보고 있었다。R양으로서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대역(大役)이 이 눈앞에 굴러온 셈이었는데, 이사람 저사람의 추천으로 후보에 오른 여배우도 오륙명쯤 더 경합하고 있는 형편이었다。그런데 R양이 사장, 전무, 기획자, 작가등 캐스팅의 대권(大權)을 쥔 사람들과 면접할 것을 전제로 유감독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약속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영화사의 사장은 다른 약속까지 뒤로 미루고 감독이 천거하는 이름없는 신인을 구경하기위해 사장실에서 기다리는 중이었고, 유감독은 영화사 근처의 다방에서 R양을 기다린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유장훈감독은 초조해져서 사장실과 다방을 왔다 갔다 하며, 사장에게는 시간을 더벌고, 다방에 내려와서는 나타나지 않는 무명 여배우에게 욕지거리도 해가며, 수차례 전화도 걸어보고 하면서 그녀의 어떤 장점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두시간이나 기다렸다。그는 R양이 전날밤 텔리비전방송국의 야외 녹화 관계로(그즈음 R양은 텔리비전에서도 단역으로 기용되고 있었다) 수원에 간것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찾기위해 거기까지 달려갈수는 없었다。

아름다운 두시간이나 기다린 뒤 그는 기진맥진해서 사장실로 가 차선(次善)의 후보로 생각했던, 그러나 그녀에게도 좋은 점이 많은 Y양을 타이틀롤로 결정한 다음 그녀에게도 통보하고 술집으로 갔다。햇병아리 신인여배우에게, 그것도 호의를 기울였던 배우에게 배신당한 기분때문에 그는 몇군데 술집을 돌며 취하도록 마셨다。그런데 R양이 눈물이 글썽해져 가지고 그 마지막 술집에 나타난 것이다。


##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 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5

##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 警察한명이 住民 6백80명 맡아

## 警察부족심각 「豫防」은커녕 事件해결力不足

한국경찰의 주민담당률이 너무 높다. 인구가 날로증가함에따라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있는 추세인데 경찰관1명이 평균6백8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있어 예방경찰로서의 임무는 커녕 사건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는실정.

15일 치안본부에 따르면우리나라경찰관의 주민담당률은 1명당6백80명으로 프랑스의2배84대1, 서독3배29대1, 이탈리아3배44대1, 미국3배62대1, 영국4배1대1에 비하면 한국경찰의 업무량이 배정도로 많은 주민을 관장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과중한 주민부담률 때문에 예방 경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해야 서둘러 추적, 해결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범죄가 집중발생하고있는 서울의 경우 지난69년 8천3백33이던 경찰관이 80년 현재 1만1천8백35명으로 43%가 늘어났으나 75년 9천3백67명에 비해서는 5년동안 2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 전국인구가 3천4백70만명이던 75년 전국의 각종범죄는 39만3천5백95건이던것이 인구가 3천7백만을 넘어선 79년에는 55만5천7백93건으로 75년에비해 무려 41%나 늘었다.

특히 최근들어 발생하는각종범죄의 성격이 지능, 난폭화해지고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경찰관수자를 늘려야 방범경찰로서의 기능을발휘해야할 형편이지만 예산이뒤따르지못해 증원을못하고있다.

치안본부는 올해 1천5백~1천6백명의 전투경찰을 경찰관으로 채용할 계획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할도시에만 집중배치할 방침이어서 지방도시의 경찰관증원은 요원한 일이 될것같다.

## 3년전에도 女教師추락

### 聖水國校 79년엔 어린이失足 骨折

故申美順교사가 유리창청소를하다가 추락사한 서울城東區 聖水국교(교장 鄭太永·53)에서는 申교사 추락이전에도 2건의 추락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77년6월중순 하오2시께 신관3층 3학년4반교실에서 베란다에올라가 바깥쪽유리창을닦던 교사 鄭惠羅씨(31·여·현京東국교근무)가 6m아래 화단으로 추락, 한양대병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79년4월말 하오2시30분께 본관2층의 1학년교실창틀 베란다에서 유리창을닦던 金모군(13·당시5년)이 실족, 3m아래화단으로떨어져 오른팔이 부러지는바람에 1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다.

聖水국교는 지난 72년12월 聖水중학교가쓰던 교사를 물려받아 개교했는데 중학생의 체격기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유리창바깥쪽의 윗부분을닦...

## 30代남자 變屍

### 甘田洞다리옆 숲에

【釜山=聯】14일하오5시30분께 釜山市北區甘田洞 천강다리옆 갈대숲에서 35세가량의 남자가 숨져있는것을 고기를 잡던 朴봉규씨(47·北區甘田洞6통3반)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자는 1백70㎝가량의 키에 노란색 T셔츠와 밤색 바지차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변시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점으로보아 2~3개월전에 숨진것으로보고 신원파악과 사인을 가리기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 大入학력고사 지구 忠州·浦項추가

문교부는 15일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대입학력고사의 고사지구로 충북 忠州와 경북 浦項을 추가, 고사지구를 26개곳에서 28개곳으로 늘렸다.

지금까지 충북은 淸州한곳이고 경북에는 大邱와 安東두군데뿐이어서 수험생들이 큰불편을 겪어왔었다.

그런데 충남과제주에도 고사지구가 각각 大田과 濟州市한군데뿐으로 특히 충남의 경우 洪城을 고사지구로 추가해줄것을 서부 충남지역학부모들이 여러차례 건의해왔었다.

## 文豪의 名言

### 丁若鏞 <1762~1836>

朝鮮朝末의 碩儒, 字는 美鏞 頌甫, 號는茶山, 天主教교명은 요안, 晋州牧使 載遠의 아들, 廣州출신。刑曹參議를 지내며 奎章閣편찬사업에 참여。1801년 辛酉教獄에 연좌 康津에 流配, 19년간 經學에 전념했다。「茶山全集」등 저서。

## 진정한 文章은 鬼神도 감동시킨다

진정한 文章이란 가까이는 사람을 감동시킬수있고 멀리는 天地를 움직이려하고 鬼神도 감격하는 그런것이라야한다。

〈邇之可以感人 遠之可以動天地 而格鬼神〉

× ×

丁若鏞은 처음 출사한 당초부터 正祖의 무한한 총애를 받았다。조선왕조 전기간을 통해 文運이 융성했던 시절이 두번있었다고 한다면 그하나는 世宗大王때요 다른하나는 아마 英·正시대로 쳐야할 것이다。

이시기는 文物이 燕京을 통해 들어오던때로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西教에 접한 茶山은 辛酉박해가 더지면서 그의 외로운 단신을 끌고 康津에의 귀양길에 올랐다。그러나 이「길」은 英·正시대 文運의 내리막길이었는지는 몰라도 茶山에겐 새로운 문운이 트이는 길이었다고 할수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평생을 두고 공부한 六經四書를 다시 정처볼수있는 「틈」이 생긴것이며 한국의歷史, 地理등에관한 지식을 정리, 주체적史觀을 세우고 西洋의 先進科學思想을 소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사상사에있어 茶山의위치를 實學의二大潮流 즉 星湖李瀷학파의重農主義的經世致用의학문을 직접계승발전시키면서 한편 燕巖朴趾源학파의 기술도입론적 利用厚生의 학문까지를 섭취, 확대시킨 實學의 集大成者로 친다。

또한 그를 政法家 實學者 社會批評家 文筆家 나아가선 經學者등 다재다능한 百科事典的 사상가라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茶山에게있어선 外表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는 진정 참된「牧民之道」를 절규한 조선왕조 末葉의 牧者였다고하는것이 더 적절한평가일수 있겠다。

까닭은 그가 「牧民心書」서문 글머리에 다음과같이 술회한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이책은 본시 나의 德을 쌓기 위한것이지 하필 꼭 牧民하기 위해서만이겠는가。그것을 心書라 하는것도 牧民할 마음만있지 몸소 실행할수 없기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是書所以畜吾之德何必於牧民哉其謂之心書者何有牧民之心而不可以行於躬也是以名之

「仁이란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다。仁者鄕向愛也」(論語古今注卷三)

## 천왕봉 標識板 설치못해

### 誠金으로 만들었으나 慶南道 승인늑장

【晋州=聯】 봉사단체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국립공원천왕봉」(해발1、915m)이라는 표지판이 경남도당국의 설치승인 늑장으로 세우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

15일 山淸郡에 따르면 山淸郡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 청년회의소등 3개 봉사단체 회원들이 지난8년 성금 40만원으로 천왕봉 표지판을 만들었으나 도가 이미 표지판이 설치돼있다는 이유로 설치승인을 해주지않아 봉사클럽 회원들은 이미 헬기로 천왕봉까지 운반해놓은 표지판을 세우지못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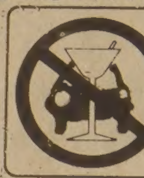
## 韓國농촌 연구해온 크네즈博士 金海에

◇30년간 한국농촌 변천을 연구해온 유진·I·크네즈박사。

【金海=聯】30여년간 한국농촌의 변천사를연구해온 미국국립박물관 교수겸 아시아민족연구실장 유진·I·크네즈박사가 14일상오 자신의중요연구대상지인 경남金海市三政洞을 찾아왔다.

50년대와 70년대등 10년을 주기로 한국농촌의 변천사를 연구하면서 三政洞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삼아온 크네즈박사는 앞으로 약1개월간 金海에 머물면서 80년대를 맞아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농촌의 살림살이및 살림도구 농기구 옷가지 집모양등 생활상을 조사 연구하게된다.

크네즈박사는 이날『앞으로 한국농촌의 변천상을 학문적으로 정리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이곳의 따뜻한인정은 언제와도 변함이없다』고 말했다.



## 醫學協 文太俊회장 亞·大洋洲협회장에

대한의학협회 文太俊회장 (사진)이 14일 2년임기의 아시아 대양주 의학협회연맹(CMAAO) 제15대회장에 선임됐다.

## 流星의 賦 <184>

李炳注作 李友範畵

明暗 ④

사맹(司猛)이면 지금의 군대계급으로 쳐서 준위(准尉)에 해당할 것일까。아들은 계남으로선 뜻하지 않은 높은 벼슬인 것이다。물론 명문(名門)의 자제가 취할 바 자리는 아니다。

『알선해 주시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고맙긴』

하고 덤덤히 앉아 있던 이영이 투벅 물었다。

『모당(母堂)의 허락은 받으셨나?』

이영이 말하는 모당의 허락이란 숙랑과의 결연(結緣)을 두고 한 말이다。

『예』

그리고 계남이 다음과 같이 말을 보탰다。

『평생을 두고 소중하게 여기란 어머니의 분부가 있었사옵니다』

『고마운 말씀이었군。숙랑이 들었으면 감격하겠다。그런데』

하고 이영이 한참을 망설이듯 하더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미리 알아 둬야할것은 숙랑을 홍씨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지못한다는 사실이다。숙랑은 영원히 이집에 살아야하고 시집을 보낼수는없다。그런까닭에 홍공의 정실로 할순없다。뿐만아니라 홍공과 숙랑사이에 자녀가있을경우 그자녀를 홍공이 데리고 가지못한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무성지자(無姓之子)가 되는것 아닙니까?』

『내말을 끝까지 듣게。홍공과 숙랑사이에 아이가있을경우 나는 임금께 아뢰어 새로 성(姓)을 받을참이다。이를테면 일문(一門)을 창설하게된다。그뜻을 미리 알아둬야하겠다』

임금께 아뢰어 새로 성을 받겠다는 말은 계남의 짐작을 넘는것이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영의 말이 있었다。

『처남 남매간이 될 사이니까 하는말이지만 나나 숙랑의 성은 이씨인데도 이씨가 아니네。이씨가 아닐뿐더러 아무성도 아니다。그야말로 무성지민(無姓之民)이오 무적지성(無籍之姓)이다。이렇게 나는 삼대를 지내온 몸인데 그 까닭은 묻지 말아주기 바란다。숙랑의 혀가 굳은것도 선천(先天)이 아니고 후천(後天)이다。자라 자기의 근본을 묻거나 말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약을 먹인 때문이다。사람으로서 이 무슨 기구한 팔자인가。이 세상에 있어선 안될 인간이 있기 위해선 그처럼 가혹한 시련도 있어야 했던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주하지도 않고 푸념하지도 않는다。오직 내가 바라는 바는 새로운 가문(家門)을 세울 아이의 출현이다。홍공의 늠름한 기상과 숙랑의 영특한 재능이 합하면 새가문의 창시조(創始祖)가 될만한 아이를 낳으리라。인생의 운명도 갖가지, 나는 홍공을 만난 것을 만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은 이렇게 말한다음

『월하빙인(月下氷人)이란 말이 있더니 오늘밤 달이 아름답구나。저달아래에서 가약(佳約)을 맺는 예(禮)를 행해야 한다고 했다。

만세(萬世)의 달을 증거로하고 여름꽃의 축복을받으며 무녀(巫女)의 인도를받아 홍계남과 숙랑은 부부아닌 부부의, 부부의 이름을 띠지않은 오직 남(男)과 여(女)로서의 결합을 다짐하는 조촐한 예식(禮式)을 올렸다.

##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 내가 해줘야할 일이 뭐가있지?" "당신 작업대를 청소하고, 뒷문을 고정시키고, 벽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려면서 그건 왜 알려고 했죠?" "내가 하지않을게 뭔지를 알면 낮잠을 더즐길수 있거든"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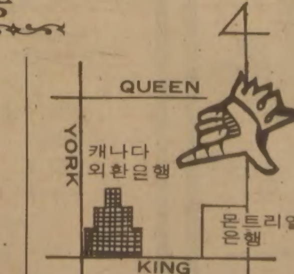

# 이전및 영업안내

저희 캐나다 외환은행은 오는 10월6일 정식개점을 앞두고 아래 주소로 이전하였읍니다.

영업범위는 아래와 같사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라겠읍니다.

## 영업내용

예금업무
송금 〃
수출입 〃
대출 〃
기타 〃




캐나다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Exchange Tower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P. O. Box 402 Toronto, Ontario, M5X 1E3
☎: 364—2890

# 우편으로 장미적금을…

여러분댁에 보내드린 장미적금 협정에 원하시는 해당적금 개월수, 월부금액, 계약금액및 적금불입일자를 기입하시고 서명하신 후 첫달 월부금액의 수표를 동봉 우송하시면 은행에서 즉시 여러분 가정으로 적금통장을 보내 드립니다.

중도해지시에도 소정의 이자를 드리며 필요하시면 적금대출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 장미적금 월부금표

| 계약고 \ 계약기간 | 6 개 월 | 1 년 | 1 년 반 | 2 년 |
|---|---|---|---|---|
| 500 | 81.44 | 39.68 | 25.84 | 18.92 |
| 1,000 | 162.88 | 79.36 | 51.68 | 37.84 |
| 1,500 | 244.32 | 119.04 | 77.52 | 56.76 |
| 2,000 | 325.76 | 158.72 | 103.36 | 75.68 |
| 3,000 | 488.64 | 238.08 | 155.04 | 113.52 |
| 5,000 | 814.40 | 396.80 | 258.40 | 189.20 |
| 10,000 | 1,628.80 | 793.60 | 516.80 | 378.40 |
| 30,000 | 4,886.40 | 2,380.80 | 1,550.40 | 1,135.20 |
| 50,000 | 8,144.00 | 3,968.00 | 2,584.00 | 1,892.00 |

※500달러 이상은 500달러를 기준으로한 배수임.

# 안내의 말씀

오는 10월6일 정식 개점에 앞서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개점을 자축하는뜻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저희은행의 성장과 진로를 위한 기탄없는 조언과 협조를 삼가부탁 드립니다.

시 간 :1981년9월24일 오후7시
장 소 : 한 인 회 관
20 MOBILE DRIVE,
TORONTO, ONT.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이 장 우배

# 캐나다외환은행

# 美F16機 韓半島 實戰배치

## 1次 7臺도착 "防衛力 劇的向上"

### 나머지 41臺도 내년봄導入
### 우리空軍도 36臺導入 계획

싸우는매(Fighting Falcon)로 불리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F16기가 한반도에 실전배치됐다.

14일 하오1시 주한미공군 ○○기지에 7대의 F16기가 도착, 워커주한미대사, 尹誠敏합참의장, 존·A·위컴 한미연합군사령관, 李喜根공군참모총장, 도빌리美5공군사령관 등 한미군고위장성과 趙激權 전북지사등 현지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한미공군 8전술비행단 85비행대대장 폴·C·버넷중령이 지휘비행해온 7대의 F16기들은 이날상오11시 오끼나와의 가데나기지를 떠나 하오1시 2대의 F4D팬텀기의 호위를받으며 V자형으로 사뿐히 활주로에 앉았다.

이어서 거행된 환영식에서 워커주한미대사는『F16배치는 한반도의 방위태세의 극적향상을 뜻하는것』이라고 말했으며 미5공군사령관도『F16기는 북괴의 신예기인 미그21기가 감히 대적할수없는 우수한 전투기』라고 말하고『내년 2~3월까지는 A10 근접지원기 배치와함께 烏山기지의 F4D팬텀기도 모두 F16기로 대치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도착한 7대중 6대는 실전용 F16A형(1인승)이었고 1대는 2인승 훈련용 기종이었다.

F16기의 한국배치는 미국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주한미공군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주한미공군은 이날 F16기의 도착으로 미본토 밖에서는 처음으로 F16기를보유하는 미군부대가 되었다.

앞서 美국방성은 F16기48대를 현재의 F4D팬텀기대신 한반도에 고정배치키로결정, 나머지 41대도 내년2~3월까지는 모두 한국에 이동배치된다.

F16기는 F14, 15기와 함께 미공군이 가진 최신예 전폭기로 空對空, 空對地 미사일을 갖고 핵무기를 장비할수있게 설계된 전천후 다목적용이다.

이날 도착한 8대의 F16기는 당초 8월21일 이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제작회사인 제네랄·다이내믹스사의 요청에 따른 기계점검으로 도착이 늦어졌다.

주한미공군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F16기가 모두 배치되면 2개의 전술비행단으로 운용될것이며 한국공군은 이와 별도로 오는 86년까지 36대의 F16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 해설

#### 北傀도입豫定 미그23機보다 월등
#### 싸우는 매…이라크原電폭격서 優秀性과시

F16기는 미국이 소련의 미그23·25기에대항하여 제작한 해외지원용 최신예전투기다.

「싸우는 매」란 별명을 가진 F16기는 미공군의 주력기 F15이글보다 경량급이지만 최고속도마하2, 조종사의시야가넓고기동성이뛰어나전투중심이좁은한반도등에서는 전투능력을 극대화시킬수있는 잇점이있는기종。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군력이 북괴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F16기의 성능이 북괴가 도입할 예정인 미그23을 능가하기때문에 F16기의 배치는 한국의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NATO의 주력전투기가 될 F16기는 53대가 이스라엘에 팔려가 이스라엘도 지난6월 이라크의 오시라크원자로를 폭격할때 이를사용했고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등 4개국이 3백48대를라이선스제작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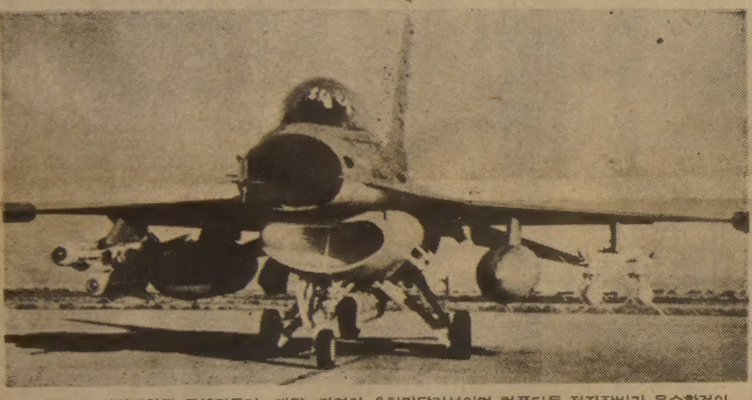
F16기는 지난6월22일 영국 로시마우스 공군기지에서 있은 美英공군 전폭컨테스트에서 영국공군의 최신예전폭기 제이거를누르고 8천점만점에 7천8백31점을 얻어 우승, 지상공격력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했다.

표준장비는 M61 20mm포와 2개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그밖에 기체중앙하부에 1개, 날개아래에 6개, 날개끝에 1개씩 모두9개의 장착점이있다. 재급유없이 3천8백90km를 날수있고 작전반경은 9백25km. 기체가 작아 육안으로는 물론 레이다포착이 쉽지않은 장점이있다.

미본토에는 3개공군기지에 2백69대가 배치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86년까지 36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스라엘이 75대(53대 이미 인수), 이집트가 40대를 구입할 예정으로있다.

74년 첫 시험비행을 했고 77년부터 실전배치를위한 제작에 들어간 F16은 팬텀기보다 연료도 적게들고 소음도 작은 잇점까지지니고있다.

실전용인 F16A는 조종사 1명이 탑승케되어있고 훈련용F16B는 2인승이다.【申鉉鎬기자】



◇한반도에 실전배치된 F16전투기。대당 가격이 2천만달러선이며 컴퓨터등 전자장비가 우수한것이 특징。비행기값의 절반이상이 전자장비의 값이다.

◇F16機諸元 ▲길이14·52m ▲높이5m ▲폭10m ▲무게9톤 (완전무장시 16톤) ▲최대속도 마하2·02 ▲순항속도 마하0·9 ▲항속거리 3,890km ▲작전반경925km ▲최대폭탄적재량6·9톤 ▲추진력 25,000파운드

# 36차 유엔總會 오늘開幕

# 美·蘇 관계惡化 波瀾일듯

## "東西긴장 世界위험直面" 발總長、

## 平和監視 衛星發射제안 英國紙

【유엔本部12日UPI=聯】제36차 유엔정기총회가 15일하오(현지시간) 1백54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이번총회엔 1백36개의 임시의제가 상정돼있으며 그중엔 나미비아문제, 아프가니스탄사태, 中東분쟁, 팔레스타인문제, 캄보디아문제, 군비경쟁, 남북대화문제등 지난해에 결말을 보지못한 문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국제정세가 위험과 긴장으로가득차 있다면서 東西간 긴장 특히 美蘇간 관계악화가 커다란 불안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세계가 대량파괴, 정밀무기의 비축증대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발트하임사무총장은 또 다른 주요의제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빈부국간의경제회담인 남북대화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전통적으로 21일부터 3주간의일반토의에 들어가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정책을 천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자리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새 외교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총회는 개막첫날 지난해 총회의장인 서독의 뤼디거·폰·베히마르대사의 후임으로 아시아 국가중에서 의장을 선출키로 돼 있는데 유엔대변인은 아시아 국가들이 총회개막전 대표선정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장선출에이어 총회는 바누아투를 1백5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런던13日AP=聯】유엔관계자들은 우주로부터 세계군대들을 감찰하여 지구의 평화를 유지시키기위한 국제인공위성발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英업저버紙가 13일보도했다.

업저버紙는 이 국제평화인공위성발사계획이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되기위해 이미 준비돼있으며 내년 6월 있을 유엔군축특별총회기간중 토의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이인공위성은 지구궤도를 선회하면서 고성능특수카메라로 세계각지의 군사활동을 감시, 세계분쟁지역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과 함께 세계평화를보호하게 될것이라고 업저버紙는 말했다.

이같은 유엔 계획작성에관여한 기술고문 뉴펜드라·자사나박사는 업저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인공위성계획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정치적·재정적 문제들을 극복해 이계획을 실현토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헤이그·소노다會談

【東京21日=聯】일본정부는 오는 21일 예정된 美日양국외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일본의 적극적인 對韓경제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엔총회참석차 16일 미국을 방문하는 소노다(園田直)일본외상은 21일 뉴욕에서 헤이그美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측은 미일외상회담이 한일각료회의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 특히 韓日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인 일본의대한경협문제가 중점논의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안보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거듭 설명, 미국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對韓經協문제가헤이그—소노다회담의 최대쟁점이라고 보는 근거는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미국에대해 여러차례 적극적인 대한경협을 공약했기때문이다.

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은 지난5월 레이건美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이 군사를 제외한 경제·기술면에서 대한협력에 일층 노력할것임을 밝힌바 있으며 7월의 오타와정상회담때도『韓日관계가 중요하기때문에 가을에라도 방한, 경협문제를 타결짓겠다』고 스스로 약속한바 있다.

日本의 산께이(産經)신문은 13일 헤이그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한일우호관계가 방위와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대한 관심을 갖고있다는 표현을 사용, 일본의 적극적인 대한경협을 종용할가능성이 큰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소노다 日외상 ◇헤이그美국무장관

## 사우디國防次官등 全대통령、接見叙勳

全斗煥 대통령은 14일하오 청와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휴맥이드 국방차관과 알·올란 육군사령관을 접견하고 保國훈장 統一章과 國仙章을 각각 주었다.【사진】 이 자리에는 金鍾烌총무처장관과 알·노와이저駐韓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배석했다.

# 美국방비 130億弗삭감

## 84년까지 3年間 레이건 均衡豫算목표로

【워싱턴13日UPI=聯】레이건 대통령은 12일 균형예산을 달성키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84년까지 3년간 美국방예산에서 총1백30억달러를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백악관당국이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공식발표를통해 이같은 국방비삭감조처가 美군사방위력의 증강필요성과 경제회복을 이루기위한 연방지출의 삭감필요성등 양자간의 균형을 이루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저건 백악관공보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이번국방비삭감조처가 미국의 전략적 군사력에 영향을끼치거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번조처에도 불구, 미군비지출을 매년 7%증액시키려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될것으로 확신하고있다고 말했다.

저건 국장은 또 이번조처로 오는10월1일부터 시작되는 82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0억달러가 줄어든 1천8백18억달러, 83회계연도 국방예산은 50억달러가 줄어든 2천1백49억달러로, 84회계연도 국방예산은 60억달러가 준 2천4백26억달러로 축소조정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예산삭감조처에 따른 구체적 방위계획축소 조정결정은 美軍당국의 건의서가 나온이후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 爆發主犯 무자헤딘 所屬

【테헤란13日AP=聯】이란안보회의간사인 마수드·케쉬미리가 지난 8월30일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수상을 사망케한 폭발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졌다고 이란 라디오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아야톨라·라바니암라쉬검찰총장의 발표문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암라쉬총장은 케쉬미리를 좌익 무자헤딘·할크派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1년간이나『공직에 침투한 위선자』로 규정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케쉬미리가 폭발사건때 사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政府조직 縮小 내달22일 最終案

정부조직의 축소 조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총무처는 당초 작업 日程대로 15일까지 일단 각部處의 자체職制改編案을 취합, 대체로 오는10월 22일까지 정부조직에대한 최종 改編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무처당국자는 14일 大局·大課主義 원칙에 입각, 지난달 各部處에 시달한 職制縮小지침에따라 部處별로 마련된 職制改編案이 외무부등 2~3개부처를 제외하고는 15일 時限으로 총무처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政治·經濟등 相互理解높여"

### 南總理、유럽4國 公式巡訪마쳐

【런던13日=同行記者團 파원】유럽4개국과EC등에대한공식방문일정을 마친 南悳祐국무총리는 13일(현지시간)『이번 방문을통해 우리와 비교적 접촉이없었던 北歐제국과 정치 경제협력면에서 상호 이해를높이는데 도움이됐다』고 평가하고『巡訪國모두가 우리의 통일정책을잘 이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점으로 보아 앞으로 외교면에서 큰도움이 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出國한 南총리는 이날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로중 런던에 들러 수행기자들과만나 이같이 말하고『방문국 모두가 우리가내건 제5공화국의 國政지표및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복지사회건설등이 잘이루어지기를 한결같이 기대했다』고 밝혔다.

## 社會漫評

다리좀 뻗어보자…

## 地平線

『자유노조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은 전체주의 체제안에서 전체주의 권력의지배를 받지않고 그것이 존재한다는것이다』—이것은 지난5일 폴란드자유노조 전국대회가 개막되기에 앞서 한간부가 텔레비전에서 한말이다。국영텔레비전에 이런말이 나가기는 공산권사상 처음있는일이다。소련에서 이런 삐라를뿌렸다면 7년형에 해당한다고한다。

▼지난1년간 폴란드 공산당정권은 자유노조와 6백40건의협약을 맺었다는것이다。아이로니컬한 얘기지만 이중에서 완전히 실현된 약속은 아직까지하나도없다。그러나 텔레비전에 자유노조의 주장이 방송될뿐 아니라 시민들도 멋대로 공산당을 비판하고 있다。진짜 해서 안되는 말은 「공공연하게 소련을 강력히 공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산권 최초의 자유노조 전국대회는 노동법을 고치기위해 국민투표를 하고, 모든 선거를 비밀·자유선거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동유럽 공산권의 모든나라에 자유노조를 만들라고 주장했다。공산당은 자유노조가「정치」에 개입하며 나서지말라고 경고하고, 소련은 10만대군을 동원해서 폴란드 서북국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자유노조는 이제 폴란드에서 공산당의 3배나 되는 회원을 갖게됐다。당국이 써붙인 해수욕 금지구역 같은 푯말도 그옆에 자유노조의똑같은 푯말이 있어야 시민들이 믿을정도라고 한다。오는 10월말에 끝나는 전국대회는 이거대한조직이 폴란드를 어디로 끌고갈것인가를 가늠하게될 것이다。당면한 문제는 관료통치의 권질을 깨려는 권력의 분산이다。

▼지난번 당대회에 대의원으로 참가했던 경제과학원장 요세프·팔레타도 헝가리에서 시도되고있는 기업경영의 자율화를 지지하고있다。자유노조의 전문가들은 이런 개혁을「생산수단의 국유에서 사회화로의 전환」이라고 말하고있다。모든 기업은 종업원들이 비밀투표로뽑는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돼야한다는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다。

▼기업경영의 자율화개혁안은 지금 전국기업 3천개이상의 종업원들이 지지하고있다。그러나 폴란드정부는 소기업에 한해서 이런 경영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맞서고있다。폴란드에서의 이 입씨름은 기업경영의 자율화를 상당한 정도 시험하고있는 중공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있다。그것은 공산권 전체의 몸부림을 말한다。이 폴란드병이 동유럽 각국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50
은 : 온스당 US 11.0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바뀌어 가는 계절을 실감케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민의 삶이 그저 막연히 저편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즈음 우리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로원 건립에 첫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저, 여기에 작은 모임을 마련했읍니다.

이번 자선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중진화가 여러분들이 우리 건립위의 적극호응하여 그분들의 정열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국의 바쁜 생활 뒷그늘에 가리워 자칫하면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노후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따뜻이 감싸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되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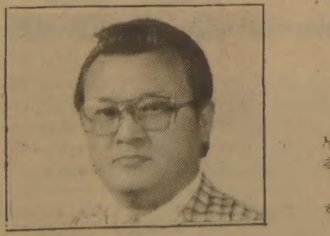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는 삭막한 이민의 삶에 뜻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읍니다.

끝으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복설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일동

# 심령 대 부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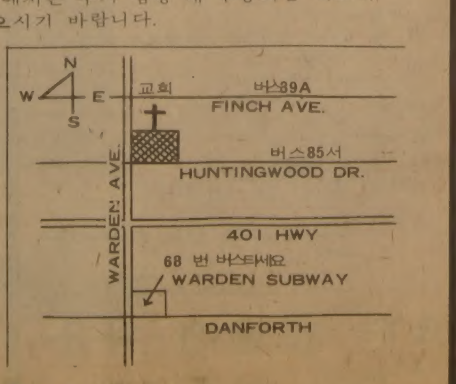


## 할렐루야!

우리 각 교회와 교민성도 여러분들께 영육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본교회에서는 추기 심령 대 부흥회를 하오니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 강 달 희 목사
일 시 : 9월25일(금) 저녁7시30분
26일(토) 새벽5시30분
낮11시
저녁7시30분
27일(주) 새벽5시30분
낮 1시30분
저녁7시30분
28일(월) 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장 소 : 웨슬레 감리교회(2385 WArden Ave. Scaborough Ont.)
담임목사 : 여 용 순
전 화 : 444-8343




웨슬레감리교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 "蘇 분쟁지역서 生化學戰"

## 캄보디아·아프간 戰鬪등서

◇波국경서 훈련마친 蘇軍 폴란드국경근처에서 자피드81군사 기동훈련을실시한 蘇聯軍이 11일 훈련을마치면서 열병를 받고있다. 【모스크바12일AP電送=聯合】

## 致命的인 有毒세균살포

## 惡名높은 「黃色의비」 사용

### 헤이그, 不法무기사용 強力비난

【西베를린13日UPI合同=聯合】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13일 소련이 캄보디아·라오스·아프가니스탄전투에서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사용하는 생화학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유고방문을 마치고 西베를린에 도착, 지금까지의 對蘇발언중 가장 강경한 논조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현재 南아시아에서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고도의 유독성 세균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소련과 베트남이 南아시아지역에서 독가스와 세균무기등으로 생화학을 벌이고있음을 전세계에 입증하기위해 의료기술전문가들로 조직된 전담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소련의 생화학전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실을 14일 워싱턴에서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그장관을 수행한 美관리들은 소련이 사용하고있는 지코톡신이라는 독가스가 곰팡이에서 추출된것으로 1975년 국제회의에서 이같은 독소를 포함한 세균무기의생산을 금지한바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소련의 이같은 세균전수행이 소련의 이중성의 한 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소련의 이같은 비도덕적행위가 간과되고있다고 강조했다.

【방콕14日UPI合同=聯合】 조사에 관여했던 서방외교소식통들은 베트남軍이 캄보디아領內의 크메르 루지저항군을대상으로 악명높은 黃色의비(옐로 레인)를 사용함으로써 소련이 베트남에 독소공급을 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수없는것이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黃色의비는 대기중으로 일단 분사되면 2~3일후에 活性이 상실되며 라오스로부터 타이국경까지 샘플이 도착하는데는 몇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워싱턴에 도착한 새로운 샘플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베트남軍의독소사용으로 파멸적인 결과가 생길것으로 단정, 미국방성은 지난8월 동남아지역으로 전문가들을 서둘러 파견했던것으로 보도되었다.

### 蘇, 化學무기설非難 중상적인 날조

【모스크바13日AP=聯合】 소련은 13일 소련과 그 맹방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고있다는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비난을 『중상적인 날조』라고 일축했다.

## 蘇, 사다트顚覆 음모

### 埃 3년內査 反政人士·KGB要員 접촉

【카이로13日AP=聯合】 이집트 정보당국은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획책한 소련의 음모를 적발했다고 이집트여당의 기관지 마요가 14일 보도했다.

주간 마요誌는 스웜프(늪)라는 암호가 붙은 소련의 음모에 소련비밀경찰(KGB)요원들과 전이집트 부수상 1명, 전각료들, 대학강사및 언론인들이 연루돼있으며 소련외교관 2명이 모스크바와 이집트 음모자들사이를 중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음모에 연루된 8명의 이집트인사들은 지난5일 사다트 대통령의 회교및 기독교과격분자와 반정인사 숙청때 검거된 1천5백명가운데 포함돼있다고 이신문은 말했다.

마요지는 이집트 정보요원들이 지난 3년간 이번에 적발된 음모관련자들을 은밀히 내사해왔다고 밝혔다.

마요는 음모에가담한 이집트인사들 가운데 알렘·살랍·연합진보당(UPP) 마르크스주의세력및 낫세르주의 세력들이 포함돼있으며 그는 이집트의 좌익세력들로 연합전선을 만들고 소련첩자들과 접촉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 佛, 中央集權制 해체

### 下院, 地方分權制 승인

【파리27日AP=聯合】 프랑스국민의회(하원)는 12일 미테랑 사회당 정부의 야심에 찬 국가제도 현대화계획의 첫번째 조치로 나폴레옹시대이래 계속돼온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해체하고 지방정부에 다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지방분권법안을 贊 3백29, 反 1백29표로 승인했다.

각지방당국의 새로운 권한과 권리등을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승인을 거쳐 미테랑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뒤 공식 언론기관에 발표되어야만 법률로서 확정 발표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수개월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 이란선거 10월2일 議會보궐선거도

【앙카라12日UPI=聯合】 지난8월30일 폭사한 故 모하메드·알리·라자이 이란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기위한 대통령선거가 오는10월2일 실시된다고 테헤란방송이 12일 보도했다.

### 金日成의 혹 더커져 너무 늙어 제거못해

【北京14日UPI=聯合】 北傀 金日成의 목 뒷부분에 생긴 혹이 최근 더욱 커졌으나 그의 주치의들은 金이 혹제거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14일 전했다.

최근 平壤을 방문한후 北京에 귀임한 한 외교관은 金日成의 목뒤에 난 혹이 내주먹보다도 더 커졌다고말했다.

이 외교관은 金日成의 주치의들은 金이 너무 늙어 혹제거수술을 받을수없기 때문에 도리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波 流血사태可能性 정부·自由勞組충돌 西獨紙 보도

【본13日AP=聯合】 라코프스키 폴란드부수상은 정부와 자유노조간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 말한것으로 서독의 슈피겔誌가 13일 보도했다.

### 메아리

### 첫 얼음

드높은 하늘과 바람소리로 가을이 온것을 안다고 한다. 가을은 단풍과 청새의 계절이며 또 국화의 계절이다.

『동쪽 울타리 밑에 핀 국화를 따노라니 유연히 눈에 비쳐온다. 山氣는 아침 저녁으로 아름다와지고 새는 무리지어 날은다. 이 사이 참뜻이 있으니 말하고 싶어도 말을 잊게 한다』 陶淵明은 시로 노래했다.

추석을 보내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대관령엔 벌써 첫얼음이 얼었다고 한다. 예년같으면 이달말께나 있을 「가을속의 겨울」을 일찍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으로 사철의 뚜렷함을 든다. 계절의 변화란 칼로 베듯 분명하지는 않다. 가을에는 「세개의 가을」이 있다. 중국에선 한계절을 孟·仲·季로 또 갈랐다. 여기에 24개節氣가 포함된다. 24개의 節氣를 둘씩 묶어 12개의 節月을 만들었다. 따라서 세개의 가을은 孟秋, 仲秋, 季秋로 나뉜다. 孟秋엔 입추와 처서, 仲秋엔 백로 추분, 季秋엔 한로 상강이 각각들어간다. 이 節氣가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되었다.

우리가 흔히 초가을이라고 표현할때는 「여름속의 가을」이다. 늦장마나 태풍이 지나가면 仲秋고 晩秋에 이르러 天高馬肥의 계절을 노래하게 된다. 세개의 가을은 모두 맛과 멋이 다르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찍 왔다. 그 뒤끝이 추우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갈것같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온은 곧 회복 될것이니 지금은 가을의 입구일 뿐이다.

저온과 첫얼음소식을 들으면서 「풍년의 꿈」을 앞둘히 지켜가야겠다는 기원을 하게된다. 3년만에 잡은 평년작 이상의 풍년에의 기대다. 풍년도 앞으로의 날씨가 좌우한다. 가을 농작물에 두려운것은 서리의 피해다.

서리의 원인은 두가지. 冷氣團이 오거나 밤에 輻射에 의한 열손실로 주위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때다. 이른 가을의 서리는 대개 후자의 경우다. 통계로 보아 서리가 10월중순 이전에 맺힐 확률은 절반이하다. 추수까지 큰 염려는 없지만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날씨가 제발 변덕을 부리지 말았으면 하고 빌어본다.

## 레이건-베긴 서로봐주기 흥정

레이건행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베긴이스라엘수상은 초면의 레이건과 2차에 걸친 회담을 마친 13일 『美·이스라엘관계가 새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인사이드

이라크원자로폭격, 레바논공습등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던 베긴수상도 더이상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게 할 수없는 형편이었다. 그사이 양국관계는 30년래 가장 疏遠해 있었으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중동평화에 위태로운 사태를 야기해 미국을 난처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베긴수상의 등을 두드려주고 미국의 새로운 중동전략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

베긴은 당초 미국이 AWACS(조기경보통제기) 5대등 85억달러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키로 한 방침을 「이스라엘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었다.

그러나 베긴은 예상과는 달리 AWACS機판매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지 않은 대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적·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 對사우디 警報機판매 묵인

### 베긴, 政治·軍事的 지원요구

베긴은 이스라엘 후견인으로서의 미국에 만족치 않고 한발짝 더나아가 군사적으로 동맹관계까지 미국을 끌어들이기를 기대하는것 같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AWACS체제에 맞설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정보위성을 공동이용하자고 제의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육·해·공군기지및 시설을이용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이스라엘제안은 미국의 對중동전략에 배치되는 것이아니라 근사하게 접근하고있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후 자신의중동전략이 베긴의 강경책으로 뜻대로 먹혀들어 가고있지않음을 우려해왔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소련의팽창을 저지키위해 페르시아灣에서의 군사적우위를 확보한다는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해 놓고있다.

따라서 레이건행정부는 이스라엘을 對蘇방위의 최대거점으로하고 이집트·사우디의 對蘇전략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새中東戰線」을 구축하려하고있다.

AWACS機의 對사우디판매는 바로 이전략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함께 레이건행정부는 1년이상 중단된 상태에있는 캠프·데이비드협상을 속개, 팔레스타인 자치권문제를 하루빨리해결함으로써 對아랍권에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려하고있다. 이미 레이건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협조를 부탁했고 이번에 베긴에게 팔레스타인 자치권협상을 이달말 개시하자고제의했다.

그대신 미국은 이스라엘과 『전략적 협력협정』을 빠른 시일안에 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샤미르이스라엘외상은 전략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수공장을 건설할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이나면 이를 美군수공장에서 생산한 무기와 탄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美·이스라엘전략협력의 농도를 그는강조했다.

그러나 미·이스라엘관계가 앞으로 「밀월여행」을 약속하기에는 많은고비가 도사리고있다.

베긴은 AWACS판매를 미국의회에서 저지한다는 전략을세우고 공작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만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에는 소련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내심으로는 아랍圈을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있다.

이스라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때는 미국무기를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텔아비브쪽에 브레이크를 거는 길이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崔海雲기자】

◇베긴의 호소 : 『얼마나 [illegible]리는지』

## 西伯林 反美시위격렬

### 8만여명 "中性子彈생산등 不願"

헤이그訪獨때맞춰

【西베를린13日AP·AFP=聯合】 약8만명의 西베를린 청년들은 13일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서독방문과 때를같이하여 중성자탄생산등 미국의군사력증강정책및 對外정책에 항의하고 동서군축협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反美시위를 벌였다.

이과정에서 데모군중과 진압경찰의 충돌로 경찰관60명과 데모대원7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상점약탈및 차량파괴등 과격행동을 하던 시위자 1백1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독집권 사민당관계청년단체들이 주도한 이들데모대들은 이날 헤이그장관이 본으로 돌아가기전 5시간동안 西베를린에 머무는사이 미국의 중성자탄생산에 항의하는 한편 군축협상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西베를린 시가지를 누볐으며 일부 데모대원들은 방독마스크를 쓰고 상점약탈등 파괴행위를 저질렀다.

데모 청년들은 『헤이그 돌아가라』 『평화보다 중요한것은 없다』 『對美우호그 원하나 중성자탄은 안된다』 등의 구호 플래카드와 모의로케트포및 전시용 들것등을 들고 反美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미국의국기인 성조기를 불에 태우기도 했다.

또한 헬미트를쓴 데모대원들은 보도벽돌을 조각내 경찰에던지는 투석전과 주차해둔 차량을 뒤집어엎는 과격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 데모군중들이 헤이그장관의 체류장소인 西베를린시청으로 몰려들자 데모진압용 수포와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 3選노리는 발트하임總長

### 오늘열리는 유엔총회서…출마선언

◇발트하임

◇살 림

발트하임(62·오스트리아)유엔사무총장은 유엔창설이래 첫3선재임의 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

사무총장이란직은 강대국의 힘앞에 별영향력을행사치못하는「껍데기」뿐인 자리다. 그럼에도 세계의 대다수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엔의 우두머리로 대접받는다. 정치가라면누구나 해보고싶은 최고의명예직이다.

15일 열리게될 유엔총회에 앞서 사무총장 자리에 대한 강대국과 제3세계간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 올해로 임기끝나 競合者별로 없어

### 中共선 탄자니아의 살림 추켜세워

발트하임의 임기는 금년말로 끝나게된다. 본인자신은 과거 2期10년간 그자리를 지켜왔으면서도 3선 출마의사를 이번에 공식발표했다.

그의 3선출마선언은 유엔창설이래 전례없는 일이다. 그의 3선에는 안전보장이사회 5대상임이사국중 미·영·불·소등 4개국이 소극적지지를 표명하고있다. 중공만은 적극적 거부의사를 나타내왔다.

중공은이번부터는제3세계출신이사무총장직을맡아야한다고주장해왔다. 중공은 기회있을때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살림·아메드·살림외상을 적임자로 부추겨 세웠다. 그밖에는 후보물망에 오르는 사람이없어 결국 사무총장자리는 발트하임과 살림간의 대결로압축될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무총장은 발트하임이 4대째. 총장의 임기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관례로5년이되었다.

선거방법은 안보리에서 입후보자 1명을 선정, 총회에 추천하면 전가맹국이 표결한다. 때문에 거부권을 가진 5대국을 포함, 우선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발트하임의 경쟁자로 등장한 살림은 금년 39세. 지난79년 유엔총회의장직을 경험했다. 그는 또 안보리 월례의장직을 맡았을때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기도했다.

12월로 예정된 차기총장의 자리다툼은 4강국이 미는 「2선의 관록」과 중공이 지원하는 「젊은 수완가」의 대결이다. 제3세계에 폭넓은 지지기반을 가진 현직자와 제3세계 「출신」인 도전자의 다툼이기도하다. 【李鍾九기자】

## 美, 시속 96km 자전거 市販

### 조종간에 컴퓨터부착…速度 알려

海外토픽

인력에의해 최고시속 96km(60마일)를 내는 자전거가 미국에서 시판된다.

벡토·베타란는 이름의 「탄환자전거」는 지난해 국제人力車속도대회에서 시속 56·66마일(90·7km)로 세계기록을 세웠는데 이를고안한 동력기술자 알·보이트씨는 시애틀의 엘리·윈터즈社를통해 대당1만달러에 팔기로했다.

이자전거의 특징은 차체가 매끄러운곡면의 섬유유리로 이뤄진 것(총저항계수 0·11)인데 앞부분에 조종가능한 바퀴2개가있고 바퀴1개는 뒷부분에 달려있다.

차체는 길이 2m90cm, 폭64cm, 높이 80cm고 무게는 약23kg정도다.

특히 조종, 브레이크, 기아 변속의기능이 하나의 조종간에 모두 달려있으며 조종간에 부착된 컴퓨터는 주행시간과 거리, 주행평균 속도까지 나타낸다.

이자전거는 6단의 변속장치에 1백개의 이(齒)를 가진 앞바퀴체인을 갖고있다.

고안자 보이트씨는 페달을 1분에 82회밟음으로써 시속 96km까지 낼수있다고 설명하면서 82회까지 밟지못하더라도 시속50km만내면 상쾌하고 안락한 기분을 느낄수있다고 선전하고있다. 【外誌】

◇최고속의 人力車벡토號。

### 오늘의小史 <15일>

▲英, 솜무전투서 戰車사용 (1916)
▲유엔군 仁川 상륙 (1950)
▲한국은행권발행 (1950)
▲아이젠하워·흐루시초프회담 (1959)
▲韓·泰 무역협정 조인 (1961)
▲韓肥밀수사건政治문제화 (1966)
▲朝總聯系 재일교포 추석성묘방문 (1975)


교 육 전 도 사
청 빙 공 고

본 요한 웨슬레 자유감리교회에서는 여자전도사를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4년제 정규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 졸업자
교 역 : 2년이상 유경험자
교 단 : 전도사 증명소지자
한국어및 영어에 능한자
연 령 : 30세 이상
대 우 : 년 만날러
연락처 : WESLEY CHAPLE
주 소 : 2385 WARDEN AVE. SCARBORO. ONT.

요한 웨슬레 자유
감리 교회

1981—82 학년도
씨알학교 학생모집 안내

기 간 : 1981년9월26일부터 1982년6월19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자 격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프로그램 :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 한국어 합창
1시부터 3시까지 — 예능교실 영어교실
과목과강사 : 한국 어 : 김숙희 김옥자 이영자 여정자(한국적인 정신 풍습 예절 생활용어등에 중점을 두어 말과 쓰기로 표현을 지도함)
합 창 : 유회자(내년에 계획하는 한국방문의 모체가 될 것임)
피 아 노 : 여정자(초보자를 위한 악보읽는 법 리듬등에 중점)
바이올린 : 임혜영(수즈키 지도방법 사용)
미 술 : 김옥자 이영자(어린이 지능과 상상력 발달에 중점)
무 용 : 김미영 오재윤(철저한 기본동작과 독무 군무등)
태 권 도 : 이태우(신체단련을 통해 인내력과 자신감 양성)
영 어 : 조덕인(독해력 중심 2~8학년 만)
수 업 료 : 한국어 합창은 무료 예능과 영어교실은 한 학생이 두과목씩 택할 수 있으며 1년 수업료를 두번으로 나누어 연수표(Post Date Cheque)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학생1명—160달러 학생2명—300달러 학생3명—420달러
학교버스 : 동쪽과 서쪽에서 한 버스가 12명 이상일 경우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부모님 신청에 따라 버스로선을 결정하오니 9월22일까지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요
신청전화 : 여정자 선생님 441—2986
버 스 비 : 학생1명—128달러 학생2명—250달러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 우리時代의 伝說 베스트셀러 이야기

## 白凡逸志

金九 著

# 「遺書」성격띤 抗日自叙傳

## 생생한 鬪爭의 발자취…붓글씨로

### 30年 上海서 첫집필 47年에 출간
### 解放후도 「禁書」대접…不運의 歷程
### 69年 출판再開 요즘도 매년 1萬部 나가

그것은 베스트·셀러이기 전에 베스트·북, 베스트·북이기 전에 「성스러운 책」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 한국인이면 누구나 내용을읽어보기도 전에 이내 옷깃을여미게되는 「白凡逸志」。

金九선생의 생애를 기록한 이 책은 그의 역경이, 아니 20세기의 우리역사가 그렇듯이 나오게된 과정도 험난했다。

白凡이 이책의 집필에 착수한것은 1930년 上海에서였다。당시 임시정부 주석으로있던 白凡은 언제日警의총부리에 끝날지도모르는 자신의 생애를 두아들 仁(작고)과 信에게 알리기위해 붓글씨로 기록했던 것이다。

당시 그의 심경은 「仁·信 두 어린아들에게」라는 머릿말에 잘 나타나있다。

『아비는 너희가 있는 고향에서 수륙5천리를떠나 먼 나라에서 이글을쓰고있다。내 나이는 벌써 쉰셋이건마는 너희는 이제 겨우 열살과 일곱살밖에 안되었으니 너희의 나이와 지식이 자라질때에는 내 정신과 기력은 벌써 쇠할뿐아니라 이몸은이미 원수 倭에게 선전포고를 내리고 死線에 서있으니 내 목숨을 어찌 믿어 너희가 자라서 견대하여 말할수있을날을 기다리겠느냐』

당시에 쓴것은 그가 1876년 黃海道海州의 텃골(基洞)에서 태어나 갖은역경에 임정주석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시판되는 「白凡逸志」의 상권을 이루고있지만 白凡이 처음부터 상하권식의 자서전을 구상했던것은 아니다。그런대로 생명을 보전한채 임시정부를 이끌고 重慶으로 가자 먼저번 기록과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1944년 또 붓을 들어 역시「유서」같은 성격을 띤 「하권」을 기록한 것이다。

원본은 白凡이 직접 국한문을 섞어 썼는데 그는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다시피 하다가 자신의 무슨변고를 당할지 몰라 부하인 嚴恒燮씨(前韓獨黨선전부장)를 시켜 펜글씨로 복사케하여 하와이와 미국의 친지들에게 보냈다。

당시 白凡이 글과함께 미국의 어느교포가 경영하는출판사에 보낸 서신이 몇년전 미국에서 발견된일이있다。

『…九는 卒以不文(못나고 아는것도 없음)으로 長篇記文이 처음이오 또 막음입니다。年來로 漸漸 風前燈火의 生命을 偕保(근근히 보전)하나 倭놈의 極端活動으로는 어느날에…』

이것이 책으로 출판돼나온 것은 1947년12월15일 國士院에서였다。그때는 金九선생의 南北협상노력이 한창이었을때였다。

中國에서 두차례 손글을 상하로 내놓고 맨뒤에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밝힌 「나의 소원」을 추가해서 크기는 국판 3백66페이지규모였다。「나의 소원」은 「民族國家」「政治理念」「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등 3편의 글로 돼 있다。

白凡이 쓴 원본은 너무 구식문체여서 春園이 문체를 좀 다듬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春園이 썼다는 소문이 나돌기도했다。당시 李光洙는 민족에 대한 자신의 죄과를 보상하는 뜻에서 그 작업을 자진해서 떠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문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인 대목을 빼버려 작가 金光洲가 「잘못이 있으면 민족앞에 떳떳이 사죄할 일이지 왜 귀중한 글을 왜곡시키느냐」고 책망을 하기도 했다한다。

이 책은 초판을 약5천부나 찍었지만 대부분白凡의동지들에게 나누어주어서 금방 매진돼버렸다。白凡이 저격당하기까지의 약 1년반동안에 7판이나 나왔다。

이 책은 나오기까지의 과정 못지않게 나온후의 역정도험난했다。日帝下에서 「유서」였던 이책은 白凡이 가고난 무렵부터 「금서」같이 돼버렸다。금서목록에는 없었으나 책이 나오지못했는데, 그 분위기는 그의 묘소참배가교묘히 금지된것과도비슷했다。

이 책이 다시 나온것은 1969년 白凡기념사업회에 의해서였다。1979년으로 白凡서거30주년이 되자 이책은 저작권이 해소되어 敎文社가 단행본을, 瑞文堂이 문고본을 내놓고있으며, 한길사는 宋建鎬編으로 白凡의 말과 글을 모은「金九」를 내놨다。

지금까지 나간「白凡逸志」는 총 28판으로 요즘도 매년 1만권이상 나가고있는데 날이갈수록 이책에대한 관심은 높아가고있다。

그것은 70년대말부터 우리 현대사를 정리하는 歷史서적이 늘어나고白凡에대한 사회적존경이 높아졌기때문이다。또 南北對話에 관심이 많은 사회과 학도들도 이책에 관심을 보이고있다。

「白凡逸志」는 金九선생에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바로잡는점에서도 유익한 책이다。많은 사람들이 白凡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실체를 그릇 파악해왔다。이들은 그를「민주주의와는 거리가먼 혁명투사」로 보는수가 많았으며 더러는 「난폭한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기도했다。

그를 비민주적으로 보는것은 특히 李承晩박사와의 경력차이때문인지 모른다。민주주의의 본바탕에서 활동한 李박사와 日軍장교를 잡아죽이고, 尹奉吉의사의 의거를주도한 白凡은 대조적인 생애를 살았던것이다。

그가「白丁」의「白」자와 「凡夫」의「凡」자를 따서 자신의 호를「白凡」이라고 지은 것이나 스스로 上海臨政의 문지기가 되겠다고한만큼 사심없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은 곧잘 가려지고있다。

「白凡逸志」에는 그가 얼마나 독선과 위선이 없는 인물인가 잘 드러나있다。

그가仁川감옥에 수감될때의 대목에는 이런 대목도있다。

『…이런 악형을 당하면 나도 악을 내어서 참을수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것은 굶기는 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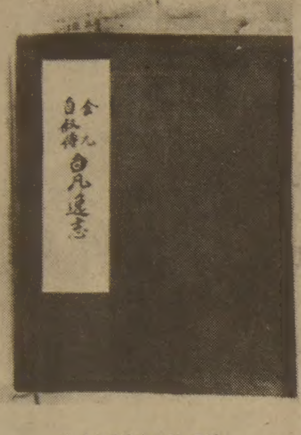
밥을 부쩍줄여 겨우죽지아니할만큼 먹이는것인데 이리하여 배가 고플대로 고픈때에 차입밥을 받아서 먹는고깃국과 김치냄새를 맡을때에는 미칠듯이 먹고싶다。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늘 들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난다…』

이책은 臺灣정부에서 교포 金在先씨의 번역으로 10만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고 일본에서도 나왔다。73년 平凡社에서 나온 日語版。해설에서 번역자인 梶村秀樹는 이렇게 썼다。

『地下의 金九先生은 倭놈이 이 冊을 읽는다니하고 쓴웃음을 치고있을것인가? 아니면 「한사람의 平凡한 人間이 살아온 眞實의 기록으로서 벌써 世界人類의 공통의 재산이된것이니까」하고 관대히 용서할것인가? 아마 그 두가지 다일것이다…』

【柔平기자】

◇白凡선생





◇「白凡逸志」의 초판。

“남성용품 판매장에서 특매를 하고있어”

「대특매—남성용품부」 “이게 특매예요？！”

“여성용품 판매장으로 가봐요”

“특매라면 바로 저런 거죠！”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㊼

## 古下·仁村·雪山·夢陽

### 中央학교·留學·YMCA등 因緣
### 모두先輩지만 大事 論할땐 同志들

亂世는 英雄을 알아보고 國難은 賢臣을 배출하며 太平은 奸雄·奸臣만을 만든다는 얘기가있다。

8·15를 前後한 시기에는 우리에게 難局을 극복할 능력을 가진巨人들이 많았다。古下 宋鎭禹, 仁村 金性洙, 雪山 張德秀, 夢陽 呂運亨, 民世 安在鴻등은 混屯의 우리나라를 이끌수있는 巨木들이었다。

이분들은 나보다 年上 선배였지만 같이 大事를 論하고 經綸을 뇌치면 벗이자 同志였으니 그들의 인품과 逸話를 얘기하는것만으로도 흐뭇한 감정을 금할수없다。

古下는 이들중 가장 정치역량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그는 백년에 한번볼수있는 能小能大의 인물이었다。古下가 살아있었다면 建國후의 우리나라에 至大한 공헌을 주었을터인데 그를 앗아간 凶彈이 저주스러울 뿐이다。

그는 겸소한 성품에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는 일이 없었으나 대화를 이끌어가는도중 모든 사람이 자기주장에 心服토록하는 탁월한 영도력이있을뿐 어떠한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和合토록하는 德性을 가지고 있었다。또 組織과 智謀, 膽力도 대단했으나 항상 大我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다。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한국의 信託統治案이 결정되고 좌익의 기세가 등등할때 그가 행한 갖가지 연설은 모두 心琴을 울리는 拔群의 웅변이었다。내가 그를 처음 만난것은 와세다대학시절의 여름방학때였다。

그는 母校인 中央학교의 교장이었다。나는 6년간의 日本유학중 방학이면 반드시 고국에 돌아와 母校와 YMCA에서 야구등을 가르치며 순회강연을 했는데 가끔 古下의 苑西洞사택에 초대되어 저녁을 같이하거나 토론으로 날을 지새웠다。

古下가 간지 얼마 안되어 雪山張德秀가 같은 慘變을 당했다。古下에 대한 비통함이 가시기전에 雪山을 떠나 보낼때의 마음은 형언할수없었다。雪山은 나, 常山과함께 日本 美國등의 생활에서 특별히 정든 사람이었고 와세다大 선배이기도 했다。常山이 경제학으로 一家를 이뤘다면 그는 정치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당시 콜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그의 뛰어난 頭腦를 알수있게한다。그는 열성적이고 진지하며 종교적믿음이 투철한데다 학구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않는 寬厚長子였다。그는 私心이 없는데다 表裏는 항상 같았으며 分別과 소신의 행동인이었다。

그는 각별히 李承晩박사를 존경했고 古下에 버금가는 정치적식견으로 大局을 가늠할줄 알았다。그러나 그는 형 張德俊(東亞日報기자) 동생 張德震과 같이 애국적 일생을 마쳤으니 巨人을 땅에 내리는 것도 하늘로 거둬들이는 것도 造物主의 뜻인가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所信때문에 臨時政府의 미움을 받았지만 끝내 소신에 의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고 변경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누가 그를 애국자라 부르지 않겠는가。

仁村 金性洙씨는 古下, 雪山과는 어떤면에서는 판이한 선배였다。그를 처음 만난것은 古下의 경우와비슷하다。방학중 귀국해보니 母校인 中央학교의 경영자가 되어있었다。

仁村은 막대한 재산이 있었으나 지극히 검소했고 많은 지도자적 인물을 뒷바라지 하면서도 항상 표면에 나서지않는 君子였다。결과적으로 仁村의 이러한 행동과 態度는 倭政에 광복운동의 효과를 한층 상승시켰다고본다。그는 성격적으로 별로 말이없는 깨끗한 선비로서 교육을 통한 人材양성이 光復에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있었다。학교경영에관한 仁村의 理想은 옥스퍼드대학이었고 오늘의 중앙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보면 그의 그러한 신념을 느끼게한다。

내가 美洲에서 돌아와 日帝의 눈이 곱지않자 그는 나를 감싸기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중 잊혀지지 않는것이 古書畵감상이다。그와 나, 古下, 滄浪 張澤相등은 매일 仁村 또는 古下집에서 古書畵를 즐기며 해방될때까지의 暗黑期를 지내왔었다。

夢陽은 나보다 13년이나 年上으로서 내가 중앙에 다닐때부터 알았다。과거 YMCA시절 그는 축구를 했고 나는 야구를 했는데 내가 일본서 공부를 할동안 그는 중국에 건너가 南京 金陵대학을 다녔다。

夢陽은 사람은 好人이었으나 행동내용에 있어 불충분한 점이 많았고 나중에 공산주의에 가담하여 나를 슬프게했다。한마디로 抗日의뜻은 좋았으나 建國의 방법에 있어서는 天壤之差가 있었다。그는 대단히 權力志向型이었고 古下가 日帝의 권력이양을 거절했을때 그가 이를 받아들이고 建準을 만든것은 두사람의 인품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런 그도 비명에 가고 말았으니 激動의 한시대를 살아가는것이 얼마나 險路이며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에는 넘어야할 逆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 예라 하겠다。

◇張德秀씨

◇宋鎭禹씨

◇呂運亨씨

◇金性洙씨

## 滅種위기…盈德게

### 漁民들 암게까지 마구잡아

【蔚珍=聯】경북동해안지방의 특산물인 盈德게가 최근들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14일 盈德郡에 따르면 지난 76년까지만해도 盈德·蔚珍·迎日등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연간 50톤이상이 잡혀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던 게가 77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78년3톤, 79년 1톤, 80년과 금년에는 거의잡히지않고 蔚珍지방의 통발어선들에의해 극소수가 잡히고 있다는것。

이같은 현상은 일부몰지각한 연안어민들이 암케(속칭 밤게)까지 마구잡는 바람에 번식을 못해 멸종돼가고 있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3361

## 汝自灣 간척사업 筏橋邑주민 건의

【順天=聯】전남寶城郡筏橋邑 주민들은 汝自灣간척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14일 筏橋邑주민들에 따르면 5km밖에 안되는 汝自灣의 만조때에는 筏橋邑 중심가를 지나는 폭2백m의 벌교천에 바닷물이 밀려올라와 1백mm의 비만내려도 읍이침수되는 소동을 빚고 있다는것。

筏橋청년회의소장 高光政(39)등 주민들은 汝自灣간척사업이 완성될경우 수해를 예방할수 있을 뿐 아니라 2천5백여ha의 경작지를 얻을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寶城郡 관계자는 『지난해에 농수산부가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답사를 한바있다』고 밝히고 사업추진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말했다。

##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3譜 43~53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徐奉洙
黑(6段) 姜哲民

徐7단은 평소 12살연상인 姜6단을 마치 長兄처럼 경모하는터라서 상대의 구수한 조크를 홀가분하게 받아넘기고 있다。그러나 물론 눈길만은 판을 떠나지 않는다。

黑43 白44가 교환되자 姜6단은 또다시 『정말잡을 작정이군』하고 18분, 그리고 黑45, 47을 두면서 『이거 꼭두어야하나』며 피식웃는다。

일종의 비상수단。姜6단은 아마 이곳에 침입한 黑일단이 「비상」에걸린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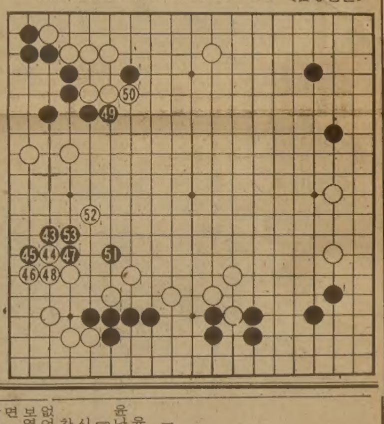
『별수없이 죽였는걸』하고 좌변을 외면하고 우변쪽을 밀어붙인 것은 칼과는달리 좌변전투를 위한 준비 공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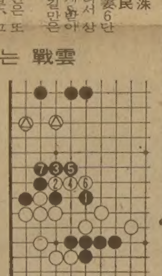
『여길 막아야 하나요』하고 徐7단도 5분간 망설이다가 白50。

그러나 국후에는 『白50은 손을빼고 직접 52에 선착하여 좌변을 확보하는 것도 「一策」이 아니냐」는 총론이었다。

徐7단도 일단 그럴요량이었다가 고분이 받아준 모양인데 黑이 51쪽으로 가볍게 뛰자 고개를 갸웃하고 다음수를 곰곰 생각했다。

黑51은 이왕이면 52쪽으로 달리는 것이 나을것같고 徐7단도 상대가 그렇게 둘것이라 예상했는지 뜻밖의 표정으로 12분을 생각하더니 白52 강행한 수였다。이수로 평범하게 잘고도의 白2는 黑3이하 7로서 △표 2점이 고립되어 버린다。【一凡】





左邊에 감도는 戰雲

## 流星의 賦

明暗 ③

<18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숙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먼저 저녁 밥상이 나왔다。시장하던 차라 맛있게 먹어치우고 밥상을 물리고 맞은편 벽에 걸린

『관인대도(寬仁大度)』

라고 쓰어있는 액자를 홍계남이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마루에서 기침소리가 있었다。이어 장지문이 열렸다。

『홍공 반가우이』

하는 말과 함께 이영이 방안으로 들어왔다。계남이 일어섰다。그리고 이영이 좌정하길 기다려 계남이 공손하게 절했다。이영의 말이 있었다。

『고향엔 갔다 왔는지』

『예』

『두루 편안하시던가』

『예』

『그 근처의 농사는 어떠했소』

『풍년으로 보였읍니다』

『삼남지방(三南地方)엔 한재와 수해로서 흉년이 들었다고들 하더만 경기는 역시 좋은 곳이구려』

『특히 제 고향 안성엔 천재지변이 드물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편안 안자 안성(安城)이라고 하는가부지?』

하고 이영은 구김살 없이 웃었다。

이어 이영은 율곡팔현(栗谷八賢)의 동태를 물었다。

『하석과 권유는 집이 서울에 있어 그대로 남았으나 다른 동지들은 모두 귀향하였읍니다』

『그것 잘했어。잘한 일이야』

『뭣이 그토록 말씀하시도록 잘한 일이옵니까』

『조정에서 말썽을 일으키려던 참이었어。자네들이 그냥 서울에 모여 있었더라면 한바탕 소동이 났을게다』

『무가 말썽을 일으키려고 했소이까』

『그런걸 알아서 무엇할건가。마음에담아둘것없네』

『정여립이 무슨 사단을 만들지 않겠읍니까。저에게 패를 보았다구서』

『그자는 자네가 누군지를 모를것이니 일을 꾸미려도 꾸밀수가 없을것이고, 설혹 있다고해도 자기에게 망신스런 일인데 발설할수 있겠나。그러나 조심은 해야될걸세』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읍니까』

『당분간 동인(東人)들의 세상이 될테지。그러나 그 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저런 얘기가 오가는 사이 홍계남이 물었다。

『내일에라도 홍성민선생을 찾아 뵈려고 하는데 탈이 없겠사옵니까』

『홍성민 대사헌은 귀문(貴門)이지?』

『그렇게 들었읍니다。파(派)가 다를 뿐입니다』

『홍성민 대사헌은 점잖은 분이시다。찾아 뵈어 탈될것도 없지。더우기 일가간이니까。헌데 선생을 찾아뵙고 무엇을 하려느냐』

『병조(兵曹)에라도 미관말직을얻어호구지책(糊口之策)을 강구할까 하옵니다』

『좋은 생각이다。호구지책이야 걱정할 필요없지만 사내가 건전한 사람으로서 부위도식(無爲徒食)은 달갑지않은 일이거든。그러나 그런 일론 홍대사헌을 번거롭게 할것없다。홍공이 원한다면 오위(五衛)의 사맹(司猛)쯤으론 내가 알선해 보겠네』

사맹이면 정팔품(正八品)이다。

## 모든 종이 위의 生

<201>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불다 ②

윤나미와 나만 남게 되자 윤나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텔리비전에서 혹시 나 보았어요?』

차마 아니라고는 대답할수 없어 나는 가까스로 끄덕여 보였다。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그런 얼굴이었다。서울역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눈에 반짝 뜨이는 미인이다 싶었고, 유감독이 나타나 소개를 해주었을 때는, 아 이런 탤런트도 있었나, 하는느낌이었는데, 탤런트라니까한 두번 본듯 싶을 뿐이었던 것이다。

『어땠어요? 주말극〈안개꽃〉에 여대생역으로 얼마쯤 나왔었는데…』

내 반응이 미진했던지 윤나미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던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예쁘던데…』

『그래요? 정말』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조그만 칭찬에도 활짝 기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비로소 나는 가꾸어진 인형으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진실과 만나는듯한 느낌이었다。

『근대 감독선생님이 그러는데, 나같이 생긴 얼굴은 브라운관보다 스크린이 더 낫다는 거에요。카메라 테스트를해보고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생긴얼굴인데?』

『작잖아요』

『작으면 브라운관에는 나쁜가?』

『그런가 봐요。영화는 스크린이 크니까 확대되잖아요? 큰 얼굴은 징그러워지는 거죠』

『그럼 영화는 처음?』

『예。잘될는지 모르겠어요。회사에서는 기성 배우를 쓰라는데 감독 선생님이 나를 밀고 계시거든요。작가 선생님두요』

나는 자그마하게 끄덕여 보였다。비로소 나는 이 여행의 스폰서가 윤나미 모녀임을 어렴풋이 나마 짐작할 것 같았다。또 탤런트로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고,영화쪽에서나마 어떻게 길을 열어볼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 윤나미의 정황도 선하게 눈에 보였다。

『잘 되겠지 뭐。그런데감독선생님하고는 옛날부터 잘아는 사인가?』

『아녜요。두달전에 누가 소개를 해주었어요。엄만 말반죽이 좋으시잖아요? 엄마 금방 그렇게 친해지시데요。감독선생님도 좋으시구』

『빙모님 빙모님하는건 장난이지?』

『그럼요。얼마전 우리집에 오셨을때 우리 언니 사진을 보셨거든요。굉장한 미인이고,또 굉장한 억척이에요。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감독선생님이 언닐 달라면서 괜히 그러시는거죠 뭐。부인도 있고,아들 딸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잘 모르겠어요。자유당때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데 나는 잘 생각도 안나요』

『엄마가 혼자 애를 많이 쓰셨겠어, 그렇지?』

자유당시대의 고관(高官)、여걸 풍의 미인인 권여사、아버지가 잘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딸 등、나는 혹시 권여사가 첩이 아니었을까 얼핏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그런데 윤나미가 내 이런 추측들을 확인시켜줄만한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시긴 했지만 엄마는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었어요。〈유정〉이라고 큰 요정을 하시잖아요?』

그밖에도 나는 윤나미가 소녀시절을 병으로 우울하게 보냈다든가,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못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야간 전수학교를、그것도 탤런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수료증을 사듯이 가까스로 졸업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 현대한국작가초대전

##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금 면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살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모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명 참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 孫甲道 銀메달 획득

## 世界레슬링

## 高鎭源 4차전에 進出

【스코프예(유고슬라비아)=聯合】한국의 孫甲道(21·東亞大)는 14일 새벽(한국시간) 이곳서 벌어진 세계아마 레슬링 선수권대회(자유형) 48㎏급(주니어플라이급) 결승전서 蘇聯의 세르게이·코르니라이에프에게 테크니컬 폴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孫은 나이지리아, 몽고, 이란, 중공의 강호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5회전(결승)에 진출했었다. 한편 柳寅卓은 68㎏급(라이트급) 4차전서 루마니아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카스카레트(쿠바)를 판정(3-1)으로 물리쳤으나 5차전서 미국의 앤디·레인에게 판정패(3-1), 메달획득에 실패했다. 74㎏급(웰터급)의 高鎭源은 3차전서 유고의 키르·리스토브에게 판정승, 4차전에 올랐으며 62㎏(페더급)의 李正根은 3차전서 헝가리의 오르반에게 판정패했다. 52㎏(플라이급)의 安勝文과 57㎏(밴텀급)의 金義坤은 초반에 탈락했다.

### 해설 特技는 머리·다리 함께 잡고 폴로 연결 〈孫甲道〉

孫甲道는 한국 신인체육상(한국일보제정) 79년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던 아마레슬링의 유망주. 79년봄 고교레슬링의 명문교인 松島商(부산) 3학년때 한국대표팀에 발탁되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귀국하지않고 美國샌디에이고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4위를 차지했다. 그해 가을 몽고서 열린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서 은메달을 차지하여 스타플레이어로 발돋움했다. 레슬링관계자들은 梁正模은퇴이후 가장 기대를 걸만한 선수로 지적하고있다. 孫은 몽고대회가 끝난후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목표를 걸고 있는 孫은 대표팀의 金益鍾, 張鎬成코칭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체력단련에 노력하고 있다. 키 1ｍ58의 孫은 엉치걸이와 머리와 다리를 한꺼번에 잡고 폴로 연결시키는 재크나이프 기술이 특기인데 현재 東亞大 2학년에 재학중. 한국 아마레슬링은 현재까지 올림픽에서 金메달 1개(梁正模) 銅메달 1개(全海豪) 세계선수권대회서 金1(張昌宣) 銀4(安在元 安川泳 梁正模 孫甲道) 銅5(吳正龍 金和經(2개) 梁正模 白承鉉)개를 차지, 복싱과함께 국제무대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는 종목으로 등장했다. 孫은 내년도 캐나다에드먼턴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 大清湖 유람선事故후 農船까지 묶어

# 논밭까지 9㎞迂廻

## 9百여 농민 不便커

## 解除전의、관계부처 節次복잡해

◇지난번 유람선 전복사고이후 농선(農船)을비롯한 각종 선박의 운항이 금지돼 농민들이 영농에 막대한지장을 받고있다. 지난9일로 담수시작 10개월만에 만수위에 육박한 大淸댐에는 행정선을 제외한 모든배들이 운항을 못하고 발이묶여었다.

【永同=聯合】大淸湖유람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大淸댐주변에 내려진 농선운항금지령이 20일이 지나도록 해제되지않고 있어 농번기를 맞은 이지역 농민들이 고통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0일발생한 유람선전복사고이후 각종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농선및 유람선의 운항을 일체금지, 沃川郡소속 농선10척、報恩郡소속 6척등 16척의 농선이 발이 묶여있다.

이때문에 沃川郡青城面合金里와 東二面石灘里 郡北面大亭里등 3개면 14개부락 주민 8백여명과 報恩郡懷南面新谷里등 1개면 6개부락 주민 1백80여명은 농작물관리를 위해 1~3㎞씩 걸어나와 행정선을 이용, 4~6㎞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沃川郡青城面合金里의 경우 지난달 30일이후 강물이 불어나 금강유원지간육로가 막힌데다가 농선마저운항할수 없게돼 60여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된 상태이다.

또 沃川郡東二面石灘里 덩기미마을에 전답 3만1천6백여평을 갖고있는 沃川邑水山里 80여주민들은 농선을이용할경우 불과 1㎞인 거리를 4㎞나 육로로 우회해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대해 沃川郡과 報恩郡당국은 주민들의 고통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농선운항금지를 해제해줄것을 도당국에건의하고있으나 산업기지개발공사·국토관리청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해제조치가 늦어지고있다고 밝혔다.

### 公州儒林 2만4천 同姓同本不婚 진정

【公州】충남公州郡 유림대표 盧載光씨등 2만4천8백83명의 유림들은 13일 동성동본혼인허용과 호주상속법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 요로와 국회등에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고있다.

특히 公州는 백제시대는왕도였고 1930년에 이전까지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가 있던 고도로 충청지역 유림의 중심지역인데 이곳 유림대표들은 정부가 민법을 고쳐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하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윤리도덕을 스스로 짓밟아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처사라고 비난, 민법 조항개정추진작업을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 上水道管낡아 食水難

## 三千浦 日帝때설치…흙탕·녹물 뒤섞여

【三千浦=聯合】경남三千浦지방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낡아 식수공급이 제대로 안되고있다.

14일 三千浦市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매설된 1천35㎞의 송수관 대부분이 40년전 일제때 설치된 것들이어서 하루 5백여톤의 물이 누수, 땅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어 식수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것.

또 녹슨 물이 나오는것은 물론 흙탕물까지 뒤섞여 나와 일반가정에서는 식수를받아놓고도 2~3일씩 침전시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三千浦市는 시민들의 식수난을 해소하기위해 지난79년 12월 45억원의 사업비를들여 南江댐에서 용강정수장까지의 28.3㎞ 송수관 매설공사와 취수탑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누수를 막기위한 노후상수관 교체작업이 더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廢死양식장 제거어 漁民비용커 2重苦

【鎭海=聯合】경남鎭海일대 황금어장에는 지난번에 밀어닥친 적조현상으로 50억원이상의 양식패조류가 폐사한데다 폐사된 각종 패조류의 제거작업비용이 엄청나 어민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鎭海시내 6백56㏊ 1천5백여㏊의 피조개양식장이 폐사위기에 놓여 있으며 경남昌郡熊東面, 天加面일대 8백여㏊에 살포된 피조개도 30여억원어치가 전멸되다시피 했다는것.

이용, 시내高明洞산49일대의 탑이 불탄후 인근 농가에까지 날아가고있고 주변의 과수원농경지·임야에 마구날려 쓰레기공해를 유발하고있다.

# 車輛通行에 큰不便

## 교량가설 건설회사 重裝備가 國道파손

【堤川=聯合】교량가설공사를 하고있는 건설회사 중장비들이 국도를점령하고 작업을하고있어 국도가 파손되는것은 물론 가종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있다.

충북堤原郡鳳陽面九鶴里앞에서 길이1백2ｍ, 높이6ｍ, 너비11ｍ의 九鶴橋가설공사를 하고있는 서울H건설주식회사는 지난4월2일 시공이후 현재까지 페이로더·포크레인등 가종 중장비를동원, 국도를 가로막은채 작업을 하고있는가하면 국도변에 골재선별기를 설치, 자갈 모래등 골재 선별작업까지 하고있다.

이로인해 중부내륙지방의 주요산업국도인 이곳을 오가는 시멘트운반차량과 버스등 하루 1만2천여대의 가종차량이 제대로 소통이 안돼 큰불편을 겪고있으며 폭7~5ｍ의 포장국도가 마구파손되고있다.

### 쓰레기 野山에 放棄 農耕地·景觀등 훼손

【堤川=聯合】堤川市가 시내 각가정과 시장등지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인근 야산에 마구 내다버려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주변 산림과 농경지등에까지 큰 피해를 주고있다.

堤川市는 관내 13개洞 1만6천9백36가구와 中央路1街 中央시장, 明西洞 西部시장, 花山洞 역전시장등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1일 90여톤의 각종 쓰레기를 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 墜落여교사 숨져

## "아서라 내가대신 窓닦으마"

### 聖水국교에빈소

학생들을 대신해서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해서 중상을 입었던 서울城東區聖水洞聖水국교 5학년4반 담임교사 辛英順씨(41)가 14일 새벽4시10분께 입원중이던 한라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辛교사는 지난9일 하오2시30분께 교실앞3층 유리창을 닦다가 4ｍ아래 베란다로 떨어져 뒷머리를 크게 다쳐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날 숨졌다.

辛교사가 순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학년4반 어린이들은 교탁에 「고 신영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 리번이 달린 국화화분을 놓고 슬픔에 잠겼다.

학교측은 본관현관에 辛교사의 빈소를 마련하는한편 전교생의가정에辛교사의순직을 알리는가정통신문을보냈다.

辛교사의 영결식은 16일상오10시 聖水국교 교정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 매캔로 3連覇

## 全美오픈테니스

【뉴욕13日AP聯合=聯合】美國의 테니스스타 존·매켄로(22)는 13일 뉴욕 플러싱·메도코트에서 벌어진 81년도 全美오픈테니스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숙적 스웨덴의 비온·보리(25)를 지난봄 윔블던대회에 이어 또다시 3-1(4-6, 6-2, 6-4, 6-3)로 꺾고 우승, 全美오픈테니스대회사상 56년만에 처음 3連覇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전날 벌어진 여자단식결승에서는 美國의 10代스타 트레이시·오스틴(18)이 체코출신의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24)를 2-1(1-6, 7-6, 7-6)로 누르고 지난 79년에 이어 2년만에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매켄로는 12일의 준결승에서 美國의 비타스·캐룰라이티스를 3-2로 힘겹게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사상첫 全美오픈 우승을 노리는 보리는 美國의 노장 지미·코너스를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었다.

매켄로는 全美오픈대회에서 3連覇는 지난 1920~1925년, 5년간 챔피언을 차지한 빌·틸든이래 처음이다.

세계테니스팬의 관심을 모았던 이날 결승전은 지난봄 윔블던대회와는 달리 두선수가 의외로 저조한 플레이를 보였으며 설욕을 노리던 보리는 첫세트를 6-4로 딴후 난조에 빠졌다.

매켄로는 2세트이후 주무기인 강타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정확한 발리와 빠른 변화플레이로 보리를 압도해나갔으며 보리는 더블·폴트를 7개나 범하는 난조를 보였다.

◇최종일전적
▲남자단식결승 매켄로3(4-6, 6-2, 6-4, 6-3)1보리
▲여자복식결승 조단·스미드2(6-3, 6-3)0사산스·틴벌스
▲여자단식결승 오스틴2(1-6, 7-6, 7-6)1나브라틸로바
▲남자단식준결승 매켄로3(5-7, 6-3, 6-2, 4-6, 6-3)2게룰라이티스, 보리3(6-4, 7-5, 6-2)0코너스

# 花郞、이라크와 비겨

## 메쥬축구 準決진출은 難望

【쿠알라룸푸르=聯合】한국의 花郞은 13일밤 이곳에서 벌어진 제25회메르데카배쟁탈 국제축구대회 13일째 예선B조 3차전서 이라크와 열전끝에 1-1로비겨 준결승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花郞과 이라크는 각각 1승 1무1패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라크가 골득실차에서 플러스5, 花郞은 0을 나타내어 불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B조서 브라질에 이어 결선에 진출할 나머지 한팀은 16일밤 열리는 이라크-싱가포르, 花郞-태국전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라크가 싱가포르에 이긴다는것을 전제로하면 花郞은 태국과의 경기서 6골이상으로 대승해야 결선에 오를수있다.

◇전적 ▲B조 한국1(0-1, 1-0)1이라크

◇중간성적 ▲B조=①브라질 3승 ②이라크 1승1무1패 ③한국 1승1무1패(이상골득실차) ④싱가포르 1승1패 ⑤태국 3패 ▲A조=①일본 3승1패 ②뉴질랜드 2승2무1패 ③인도 2승1무1패 ④아랍에미리트 2승3패 ⑤인도네시아 1승1무2패 ⑥말레이지아 1승3패

# 家庭醫 외래診療 어제부터 오픈

## 서울大 電話상담도

가족단위 건강과질병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진단·치료해주고 전화상담을해주는 가정의 외래진료가 14일부터 서울大병원에서 시작됐다.

이외래진료소에서는 신축한 관리병동 1층1백18평에 5개의 진찰실과 상담실, 의무기록실등을 마련, 전임교수 1명과 외래교수와 15명의가정의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한다.

진료대상은 서울大와 서울大병원 직원가족과 일반시민으로 등록된 가정에, 한하며 5천가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7일부터 등록을 받아왔다.

### 美에미賞작품상에 힐스트리트블루즈

【할리우드14日UPI=聯合】미국TV방송계의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에미상의 81년도 최우수작품상에 12~13명의 경관들이 미국의 동북부슬럼가에서 벌이는 활약상을 다룬 힐·스트리트·블루즈라는 드라머 시리즈가 선정됐으며 최우수 남자연기부문상에는 힐·스트리트·블루즈에서 주연한 대니얼·트래버티가, 그리고 최우수여자 연기상에는 힐·스트리트·블루즈와 피컨드·핸드로즈(다산성손잡이)에서 열연한 바버러·배브코크양이 각각선정됐다.

미국 동북부 슬럼가에서 악을 퇴치하기위해 생사를 걸고 싸우는 각기 개성이 강한 십여명의 경관들의 용감한활약상을 빠른템포로 다룬「힐·스트리트·블루즈」는 최우수작품상외에도 최우수연기상 대본상 연출상등 8개부문을 휩쓸었다.

13일 거행된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밖에 수상한 작품및 연기자는 다음과같다.

▲최우수드라머상=힐·스트리트·블루즈▲최우수코미디작품상=택시▲최우수버라이어티·쇼·음악·코미디부문=릴·솔트·아우트 ▲최우수특집드라머상=플레잉·포·타임(시간벌기)▲최우수특별드라머시리즈상=쇼군(將軍)▲특집드라머시리즈부문남자연기상=범커의 앤터니·홉킨스▲특집드라머시리즈여자연기상=「시간벌기」의바네사·레드그레이브▲최우수코미디언상=택시의 주들·허시

# 裵錫哲 TKO敗

## WBA J밴텀級戰

◇소나기 펀치 WBA주니어 밴텀급타이틀 결정전에서 구스타보·바야스(右)가 裵錫哲의안면에 예리한 왼쪽펀치를 가격하고있다。裵는 8회에 TKO패했다。【부에노스 아이레스 13日AP=聯合】

【부에노스아이레스=聯合】한국의 裵錫哲(21)은 13일 상오(한국시간) 이곳 루나파크 경기장서 벌어진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신설 주니어밴텀급 타이틀결정전서 홈링의 구스타보·바야스(26)에게 기량 열세로 8회 2분58초만에 TKO패, 정상정복에 실패했다.

바야스의 스피드와 다양한 공수 테크닉에 압도당한 한판이었다. 裵는 초반, 한때 양훅을 휘두르며 밀어붙였으나 큰 위협을 못주었으며 5라운드부터 안면에 소나기펀치를 맞아 열세에 빠졌다.

오른쪽 눈언저리가 많이부어 오른 裵는 8라운드 중반께 수스·셀리스 주심이 경기를 중단 시킴으로써 TKO로 무릎을 꿇었다. 기량의 차가 현저하여 이길수없는 경기였다.

# 韓國高校 선발優勝

## 青少年축구 바레인 制壓

【싱가포르=聯合】한국고교선발팀은 12일밤 열린 제5회 라이온시티컵쟁탈 국제청소년축구대회(16세미만출전) 결승전에서 FW李基根의 결승골로 바레인을 2-1로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팀은 이날 泰國을꺾고 결승에 올라온 바레인을맞아 시종 우세한 게임을펼쳤다. 한국은 지난해 이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었다.

◇결승전적 한국2(1-0, 1-1)1바레인

### 韓化여자농구팀 日本遠征서귀국

日本에 원정한 한국화장품 여자 농구팀이 5승1무1패의 전적을 올리고 14일 하오 3시40분 KAL편으로 귀국했다.

한국화장품은 6차전서 日本通運팀과 68-68로 비겼고 최종7차전서 第一勸業銀行을 92-55로 대파했다.

◇제6차전 한국화장품 68(32-36, 36-32)68 日本通運
◇최종7차전 한국화장품 92(38-33, 54-22)55 제일권업은행

# 한국、宿敵 中共꺾고 3위

## 世界주니어 남자排球

## 李鍾敬·文湧冠 활약

3—1

【콜로라도 스프링스=聯合】한국은 13일 아침(한국시간) 美國콜로라도 스프링스 올림픽훈련센터 체육관에서 폐막된 제2회 세계주니어 남자배구선수권대회 3·4위전에서 李鍾敬·文湧冠·李龍海트리오의 활약으로 예상을 뒤엎고 장신의 中共을 3대1로 격파, 銅메달을 차지했다.

또 결승에서 蘇聯은 브라질을 가볍게 3대0으로 완파하고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주니어남자배구가 中共과 대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이날 첫세트에서 파이팅넘친플레이를 전개, 초반부터 中共을압도해나갔다.

첫세트들어 한국은 李鍾敬 朴炯用의 외곽 오픈공격과 中共의 수비미스 5개에 편승, 10분만에 가볍게 이겨 호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2세트들어서도 한국은 李承, 지룡판, 바오지성의 타점높은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中共의 서브미스6개등 자멸로 15-8로 따냈다.

그러나 中共은 만만찮게전열을 재정비, 주공바오지성, 주오숭콩비의 강타로 3세트를 15-10으로따내 한국을위협했다.

劉錫哲감독은 『中共주인공 장신 주오숭을 이중마크한것이 결정적인 승인이 됐으며 李鍾敬의 강연타등 두뇌플레이와 文湧冠·朴炯用의속공작전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수단은16일상오7시(한국시간) 金浦공항착 개선한다.


## 교사채용 공고

요크 한국인학교에서 근무하실 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코자 함.

자 격 : 한국 또는 카나다에서 교사 유경험자 2명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9~12시
예약기간 : 1981년 9월부터 1982년 6월까지
대 우 : 주당 $40(1회)
면접일시 : 1981년 9월26일(토) 오전9시~10시
면접장소 : BALA AVE. PUBLIC SCHOOL (JANE & WESTON)
제출서류 : 면접 당일 자필 이력서 1통지참 바람
연 락 처 : 248-6389

1981년 9월 15일

요크한국인학교



## "아는 것이 힘"
##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10월 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